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7호 1962년

평양 근로자사 발행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第17호 (210)
1962년 10월 (하)

차 례

권두언

당과 인민의 위대한 통일

매일 매 시각 위대한 변혁들을 일으키고 있는 천리마의 나라 조선은 지난 10월 8일에 있은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또다시 세인을 경탄케 하는 기적을 낳았다.

전체 선거자들은 금번 선거에 100%로 참가하여 등록된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100%로 찬성 투표하였다. 이것은 선거 력사에서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우리의 위대한 력사적 승리이며 조선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 도덕적 통일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시위한 것으로 된다.

전체 조선 인민은 금번 선거를 통하여 자기 당과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에 대한 한결같은 지지와 신뢰를 가장 뚜렷하게 표시하였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불굴의 투지를 남김 없이 과시하였다.

금번 선거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빛나는 승리—이것은 형제 나라 인민들을 무한히 기쁘게 하고 있으며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인민들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남조선에서 부질 없이 전쟁 소동에 광분하고 있는 미제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 미제의 조종 하에 분별 없이 날뛰는 일본 군국주의 잔당들을 크게 전률케 할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영웅적 로동 계급, 근면한 농업 협동 조합원들, 붉은 인테리들은 그 모두가 어제'날의 처지 여하를 불문하고 한 사람같이 당과 수령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되여 있으며 사회주의의 기치 하에 굳게 단합되여 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됨으로써 사회의 정치 도덕적 통일을 위한 물질적 기초가 확립된 때로부터 불과 4년이라는 세월밖에 흐르지 않았다.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된지도 아직 20년이 못 된다.

이 짧은 기간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적 대가정의 완전한 한 식구로, 문자 그대로의 단일한 정치적 력량으로 전변되였다.

우리 인민은 이렇게도 빨리, 이렇게도 철저하게 자기의 정치 도덕적 통일을 실현하였다. 이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것은 우선 당의 령도 하에 확립되였고 날로 공고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30년대 항일 무장 투쟁의 전통을 이어 피로써 쟁취하고 고수해 낸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는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사회에 대한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숙망을 실현하였으며 그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주권이 인민의 손에 장악되고 생산 수단이 인민의 소유로 된 사회주의 제도는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우리 인민에게 최대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과 애국적 열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였으며 날을 따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였다.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는 불과 수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기적인 락후성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나라를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적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시켰다. 오늘 우리는 인민 경제를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생산 수단들과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제도 하에서는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 있으며 일하면서 공부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학비와 피복을 공급 받으면서 다 공부하고 있다. 로동은 날로 더욱 헐하고 흥겹게 되여 가며 생활은 부단히 향상되고 병나서 치료 못할 념려는 없으니 생활에 대한 근심 걱정이란 옛'이야기로 되였고 사람들은 저마다 로동과 생활의 환희, 보다 광명한 래일에 대한 희망을 구가하고 있다.

어제'날의 가난뱅이 소작농이 오늘은 다 지주 부럽지 않은 부유한 농민으로 되고 지난 날 천대 받고 굶주리던 로동자, 머슴'군이 오늘은 대기업소의 지배인으로, 당과 국가의 지도 일'군으로 되고 있으며 학교 문전에도 못 가 보던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 오늘은 전문, 대학을 마치고 자기의 재능대로 기사, 전문가로, 대학 교원으로, 학자, 예술가, 기타 귀중한 민족 간부들로 자라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 제도, 인민 주권이 가져다 준 행복이다.

그러나 당이 없이는 사회주의 제도도 인민의 행복도 있을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아주 빨리 승리한 것도,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우리 나라가 류례 없는 속도로 공업-농업국으로 전변되고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이 급격히 향상되고 민족 문화가 오늘과 같이 찬란하게 개화 발전되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당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며 그가 지어 주는 가능성을 남김 없이 리용하기 위하여 언제나 혁명적이고 창조적인 대책들을 강구 실시하였으며 나라의 물질적, 정신적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였다.

전쟁에서 미제에 치명적 타격을 준 영웅 조선의 기상을 다시금 온 세계에 떨치게 한 우리 인민의 천리마의 진군도 당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서 이룩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총 로선인 천리마 운동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혁명적, 애국적 정열을 남김 없이 발휘시키고 있으며 생산력 장성과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인간 개조의 모든 과업들을 가장 빨리, 가장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당은 우리가 질풍 같은 속도로 나아가는 행정에서 제기되는 성숙된 문제들을 언제나 제때에 포착하고 이를 독창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고 발전시켰다. 청산리 과업과 청산리 방법의 일반화, 공업 및 농업에 대한 관리 지도 체계의 개편 등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책들이였다.

당, 국가 및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의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의 구현은 경제 문화 건설에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훌륭히 발휘시켰으며 당 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켰다.

우리 당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이 승리적으로 관철된 결과 오늘 우리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할 수 있는 중공업 기지와 대규모 경공업 기지, 억년 흉풍을 모르고 기계로 일하는 농촌 경리를 가지게 되였다. 그리고 이제는 최근 2~3년 내에 전체 인민이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 옷에 기와 집을 쓰고 사는 숙망을 실현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서게 되였다.

해방 전에 비하여 우리 인민의 평균 수명은 20년이 연장되고 사망률은 50%로 낮아졌으며 인구 비례로 보아 오늘 보통 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세계에서 제 1위, 대학생수는 제 2위로 되였다.

로동당 시대—이는 바로 황금의 세월이다. 사람들은 진정 60을 청춘으로, 90을 환갑으로 알고 더 오래 살며 더

많이 일할 것을 원하고 있다.

우리 인민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생활을 통하여 당과 수령의 배려, 당 정책의 현명성, 사회주의 제도의 혜택을 가슴 깊이 체험하고 있다. 전체 우리 인민의 운명도,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과 운명도 로동당의 활동과 배려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제 4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 당은 자기의 현명한 령도와 확고한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성과 조선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의 리익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견결한 투쟁으로 하여 조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쟁취하였으며 조선 인민이 전적으로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직한 향도적 력량으로 되였습니다》.

실로 우리 당은 자기의 현명한 로선과 정책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빛나는 성과로써 인민의 복리 증진에 철두철미 복무하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무비의 견결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련계의 기본 뉴대로 된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물질적으로 증시된 당과 대중의 혈연적 련계, 전체 인민의 철통같은 정치 도덕적 통일은 공화국 북반부를 단일한 정치적 력량으로 꾸릴 데 대한 당의 방침의 승리적인 구현이다.

당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민주 기지 로선을 관철하면서 일찍부터 전체 군중을 단일한 정치적 력량으로 묶어 세우기 위한 사상 교양, 공산주의 교양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거대한 력량을 경주하였다.

당은 우선 혁명의 참모부이며 전체 인민의 지도적, 향도적 력량인 자체의 조직 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고수하며 전당에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대중 속에서 당의 위신과 령도적 역할을 가일층 제고하였다.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되고 생산력이 급격히 장성하는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게 당은 사람들의 사상 의식을 전면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공산주의 교양의 강령적 과업과 공산주의 교양을 혁명 전통 교양과 결부시키며 궁정 교양을 위주로 할 데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인간 개조의 어려운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은 대중 속에 침투되여 천리마 운동을 심화 발전시키고 인간 개조 사업을 점차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화시켰다.

당 중앙 위원회와 같이 숨쉬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당적 사상 체계가 당의 테두리를 벗어 나 전체 인민 대중 속에서 수립되게 되였다.

이는 우리 당의 인간 개조 사업에서, 우리 인민의 정치 도덕적 통일의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진이였다.

당은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면서 특히 각계 각층 군중을 대담하게, 아량있게 포섭하고 교양 개조하여 조국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에로 다같이 나가게 하는 데 큰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리하여 당은 인간을 개조하며 전체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의 주위에 묶어 세우는 사업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의 정신 세계는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쑤에 대한 증오로 불타고 있으며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당 정책의 현명성, 혁명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되여 있다. 전체 인민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에서 배움으로써 항일 빨찌산들의 모범을 따라 조국과 인민을 위해 공산주의적으로 살며 일하려는 아름다운 기풍을 소유하게 되였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에서 표현되고 있는 우리 인민의 높은 의식성과 공산

주의적 도덕 품성은 그들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시키고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통일은 특히 경애하는 수령에 대한 전체 인민의 열렬한 흠모와 신뢰의 정으로써 설명된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조직 지도된 15 성상에 걸친 항일 무장 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한 50평생에 걸친 그이의 불면불휴의 투쟁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의 우리 당이 있고 사회주의 조국이 있으며 자기들의 행복한 생활이 있음을 우리 인민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우리 인민은 또한 우리 당의 현명한 정책과 철저한 군중 로선과 인민에 대한 극진한 복무도 수상 동지의 탁월한 령도, 고매한 덕성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사업과 생활의 크고 작은 모든 면에서 그이가 베푸시는 뜨겁고도 세심한 배려는 만사람의 심정을 격동시키고 있다. 이 뜨거운 배려의 손'길은 멀리 남조선과 해외의 동포들에까지 미치여 그들 속에서도 열렬한 조국애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정치 도덕적 통일—이는 당과 수령에 대한 다함 없는 사랑과 신뢰와 지지, 사회주의 제도,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모든 사람들 호상간의 동지적이며 육친적인 결합으로써 이루어진 통일이다.

이것은 북반부를 붉은 일색으로, 단일한 정치적 력량으로 꾸릴 데 대한 당의 방침의 위대한 승리이며 당의 군중 로선의 빛나는 승리이다.

레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의거하여야 할 힘의 최후의 원천은 대중의 의식성이며 조직성이라고 가르쳤다. 우리 당은 바로 이 최후의 원천을 훌륭히 해결하였다.

높은 의식성에 기초한 당과 인민의 위대한 통일은 우리가 앞으로 더 큰 새 비약을 이룩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이다.

태산도 옮겨 놓고 대해도 갈라 놓을 수 있는 이 힘을 이겨 낼 자는 이 세상에 없다. 이 힘은 천리마의 행군을 더한층 위력하게 추동할 것이며 원쑤들의 그 어떤 준동도 침해도 단호하게 박멸할 것이다.

하나로 뭉친 우리 인민은 6개 고지 점령을 위한 최후 돌격전에서 반드시 승리의 기'발을 휘날릴 것이며 당이 제기하는 과업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지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기어이 완수 및 초과완수하고야 말 것이다.

우리 앞에는 7개년 계획의 높은 고지,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가 서 있다. 우리 인민은 승리의 기세 드높이 이 높은 봉우리도 앞당겨 점령하고야 말 것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철통같은 통일 단결은 또한 남반부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할 것이며 그들을 과감한 반미구국 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불러 일으킬 것이다.

남북 조선의 위대한 혁명 력량은 반드시 미제 침략자들을 우리 조국 강토에서 몰아 내고 3천만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주동적으로 해결할 것이며 사회주의 동방 초소를 더욱 철옹성같이 강화할 것이다.

우리 당 보건 정책의 위대한 승리

최 창 석

인민들의 복리 향상에 대한 배려를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은 나라의 경제 문화 건설의 모든 성과에 확고히 의거하면서 인민 보건 사업 발전을 위한 광범한 시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당은 보건의 국가적 성격, 무상 치료제, 예방 의학적 방침 등 사회주의 보건의 기본 원칙들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확하게 실현함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가장 선진적인 인민 보건 제도를 확립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일제 식민지 통치와 미제가 도발한 전쟁이 인민의 생활과 건강에 끼친 후과들을 급속히 청산하고 보건 사업이 발전한 선진적인 나라로 전변되였다. 특히 인민 보건 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며, 보건 일'군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현대 의학과 동의학을 결합시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당이 취한 모든 정확한 방침들은 우리 나라 보건 사업과 의학 과학 발전에서 찬란한 열매를 맺고 있다.

* *

우리 당 보건 정책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적인 무상 치료 제도가 더욱 발전되였으며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예방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대적 설비를 갖춘 치료 예방 기관망이 비약적으로 장성하였으며 모든 농촌 리(농업 협동 조합)마다에 진료소가 설치되여 전체 근로자들이 언제 어데서나 무상 치료의 혜택을 입고 있다. 작년 말에 인구 1,000명당 병원 침대수는 일제 시기에 비하여 30.8배로, 인구 1명당 년간 외래 방조 회수는 실로 94.1배로 장성하였다. 이것은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 방조가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하여 준다.

녀성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 보호 사업은 특히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임신부들에게 무상으로 해산 방조를 보장하여 주고 있으며 또한 근로 녀성들의 자녀들을 모두 탁아소와 유치원들에서 양육하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 방방곡곡에 설치되여 있는 탁아소 좌석수는 인구 만명당 573.3석으로서 이것은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무상 치료 제도가 확대 발전됨에 따라 각종 질병들을 예방하는 사업에서도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다. 국가는 매년 전체 주민들에 대한 전염병 예방 접종과 1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 대한 결핵 예방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급성 전염병을 기본적으로 근절하였으며 결핵 리병률도 현저히 격감시키게 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생활 환경을 위생 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하여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학생들에게 위생 교육을 주고 학교를 거점으로 하여 가정과 사회를 위생 문화적으로 개조하며 군중적으로 사회주의적 생활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 우리 나라 도시와 농촌은 옛 모습을 일신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평북도 삭주, 창성군과 같이 파리가 없고 환경이 깨끗한 문화적인 농촌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래년 8.15까지에는 전국의 농촌이 다 이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무상 치료 제도가 확대 발전되고 예방 의학의 방침이 관철된 결과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은 행복과 화기에 넘치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 상태는 급속히 향상되고 있다. 우리 나라 주민들의 사망률은 일제 말기에 비하여 2분의 1로, 어린이들의 사망률은 4분의 1로 격감되였으며 평균 수명은 20년이나 더 연장되였다.

우리 당 보건 정책의 위대한 승리는 의학 과학 기술의 찬란한 발전에서도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최근 년간 우리 나라에서는 질병과의 투쟁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며 현대 의학 발전에 탁월한 기여로 되는 커다란 업적들이 속출되고 있다.

우리 의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락 실태에 관한 연구 성과는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현대 생물학 및 의학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은 위대한 업적이다.

경락 리론은 동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리론 체계의 하나로서 침구 료법의 리론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오랜 력사를 가진 이 리론은 다른 동의학 리론 체계와 마찬가지로 동의사들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의학 과학자들에 의하여서도 오랜 기간 꾸준히 연구되여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류가 도달한 과학적 지식은 생물 유기체 내에는 신경 체액 조절 계통 외에 다른 조절 계통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왔다. 따라서 동의학의 리론과 실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경락과 침구 치료에 관한 문제는 오랜 기간 단순한 반사 학설로만 해석되거나 아직 해명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었다.

실로 우리 나라 의학자들에 의한 경락 실태에 관한 연구 성과는 유기체 내에 실재하는 제 3의 조절 계통으로서의 경락의 물질적 기반을 발견함으로써 경락에 관한 부정확한 해석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동의학 리론에 확고한 과학적 근거를 부여하였다. 경락 연구 집단의 그 후의 연구에 의하여 경락의 해부 조직학적 본태와 그 생리학적 특성이 더욱 상세하게 해명되고 있다.

경락 실태의 발견은 필연적으로 의학 과학과 림상 실천에서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게 할 것이며 생물학, 축산학 등 여러 분야에서도 그 과학 체계의 새로운 편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경락 실태에 관한 연구가 가지는 거대한 과학적 가치와 의의는 우리 나라 림상 실천, 특히는 침구 의학의 눈부신 발전이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는 단순한 침 자극만으로도 수 많은 질병들을 치료하고 있으며 고치기 힘들다고 하던 병들까지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였다. 경락 실태의 발견은 우리 나라 림상가들에게 침구 치료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주었으며 그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주었다.

전국의 보건 일'군들의 집단적 노력에 의하여 경혈과 각 장기 간의 밀접한 련계성이 림상적으로 확인되였으며 고전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경혈들도 적지 않게 발견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각종 경혈에 일정한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놀라운 치료 효과를 거두고 있다. 침 자극이 일시적이나마 결정적으로 고혈압을 낮춘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해당한 경혈에 약물을 주입하면 혈압이 낮아진 상태가 오래 동안 고정된다. 같은 약물을 혈관이나 근육에 주입하는 것과 경혈에 주입하는 방법 간의 치료 효과상 차이도 대비 관찰되고 있는데 초보적으로 얻어진 성적에 의하면 경혈에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가 결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확증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침구 치료를 단순한 반사 치료법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의 부당성을 뚜렷이 증명하여 주고 있다.

동의학의 경험에서 근거를 찾아 완성한 홍역의 능동 면역에 관한 연구도 우리 나라 의학이 달성한 커다란 성과의 하나이다. 오래 전부터 우리 나라 일부 동의사들은 출생 후 3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홍역 환자를 접촉시킴으로써 홍역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나라 홍역 연구 집단이 수행한 연구 업적에 의하면 이 동의사들의 견해가 전적으로 과학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였으며 월령 3개월 미만 시기에 효과적인 접종 방법으로 홍역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수천 명에 대한 림상 관찰을 통하여 증명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연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바 멀지 않아 우리는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였던 홍역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생물 면역에 관한 리론은 새롭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위루쓰 공생균에 의한 류행성 감기의 예방에 관한 연구도 최근 우리 나라 의학이 달성한 탁월한 업적이다.

류행성 감기의 예방에 대한 문제는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오래 동안 연구하면서도 결정적인 해결을 보지 못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위루쓰 학자들은 류행성 감기 병원체와 공생하는 미생물이 질병의 발생 및 경과에 미치는 특수한 영향을 해명함으로써 이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유력한 예방약을 제조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연구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는 사람들을 이 류행성 감기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한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학 발전의 새로운 측면을 열어 놓았다는 데도 있다. 이때까지 현대 미생물학은 미생물체 간의 길항 작용을 리용하여 항생소와 같은 강력한 치료 수단을 획득하였으나 공생 작용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명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류행성 감기의 예방에 관한 연구 성과를 계기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서 미생물들의 효과적 리용 방도에 대한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 풍부한 자연 부원을 인민의 복리 증진에 효과적으로 개발 리용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 보건 일'군들은 또한 새롭고도 유력한 치료 예방 수단들을 수 많이 발굴하여 내고 있다.

몇 가지 실례만 들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발견된 《청생고》는 난치의 병의 하나인 골 관절 결핵을 평균 수개월 사이에 치유시키고 있으며 기타 화농성 염증에도 독특하게 잘 듣는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리고 항생소만 못 하지 않게 폐염 및 화농성 질환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약초,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약물보다도 더 강력히 듣는 새로운 혈압 하강제 등의 발견은 우리 나라 인민 보건 앞에 매우 좋은 전망을 열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경락 실태의 발견과 동의학의 급속한 발전, 현대 과학의 새로운 성과를 창조적으로 도입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달성된 업적들, 유력한 치료 예방 수단의 광범한 탐구 등은 우리 나라의 인민 보건 사업을 더욱 개화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제까지 고치기 어렵다던 병도 오늘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으로 되고 있으며 래일에는 더 많은 질병들을 막아 낼 수 있는 전망이 열려지고 있다. 이때까지 의학 교과서에 씌여 있는 지식이나 공인된 기존 리론만 가지고서는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업적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 나라 안과 의사들은 지금까지 그의 치료 방도가 충분히 해명되지 못하였던 시신경 위축과 각막 혼탁 등에 의한 실명 환자들을 성과적으로 치료함으로써 이미 수천 명의 맹인들에게 밝은 세상을 보게 하였다. 각막 혼탁 치료에서는 각막 이식술의 일정한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치료제들이 도입되여 더 높은 효능을 거두고 있으며 아주 난치의 병이라고 하는 시신경 위축 환자 치료에서도 새로운 경지를 훌륭히 개척하고 있다.

현대 의학은 병적 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시신경 위축에 대하여서도 확정적인 치료 수단을 얻어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침 자극으로 눈의 기능을 아주 민감하게 항진시키는 특수한 경혈과 신경 기능을 강력하게 회복시키는 특수한 약이 발견됨과 관련하여 우리 의사들은 이 량자를 결합시켜 경혈에 약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신경 위축을 고치는 데 성공하였다. 지금 이 치료법은 광범히 도입되고 있는데 발병 년한에는 관계 없이 많은 환자들의 시력을 회복시키고 있다.

이와 류사한 방법으로 소아 마비 후유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서도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소아 마비가 그리 많지 않지만 자본주의 국가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 병이 매년 광범히 전염되여 수 많은 어린이들을 불구 폐질의 비참한 운명에 빠뜨리고 있다. 이 병의 후유증인 신경 마비 현상은 난치의 병에 속하며 발병 후 2년

이상이 되면 거의 불치의 병으로 되고 만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발견된 치료법에 의하면 이런 난치의 병도 발병 년한에 관계 없이 단시일 내에 환자들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밖에도 수 많은 만성 질병들의 치료 대책이 성과 있게 연구되고 있으며 훌륭한 결실을 가져 오고 있다. 류마치스 환자들에 대하여서도 경혈 약침법을 적용하여 이미 수백명을 고쳤으며 록내장 환자에 대하여서도 안압을 정상 상태에 고정시키고 시력을 회복시키게 하는 성과가 달성되였다.

우리 나라 동의사들과 의사들은 또한 침구 치료와 동약의 내복을 배합하여 이미 100 여명에 달하는 진구성 정신병 환자를 고쳤으며 특발성 궤저, 간장 질환, 위 및 12지장 궤양 등의 치료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

우리 나라 인민 보건 건설과 의학 과학 발전에서 이룩된 이상과 같은 거대한 성과들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 당의 깊은 배려와 그 실현을 위한 일관한 투쟁이 가져 온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 보건 정책의 근저를 관통하고 있는 사상은 전체 인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끝까지 돌보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며 어버이의 심정이다.

이것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이 간고한 항일 무장 투쟁 시기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 온 혁명적이며 전통적인 립장이다.

김 일성 동지는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오늘과 같은 인민적 보건 제도를 구상하시고 그 기본 사상을 조국 광복회 강령에 정식화하였다.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하신 이 강령적 요구는 해방 후 우리 당에 의하여 훌륭히 실현되였다. 우리 당은 가장 선진적인 인민 보건 제도를 수립하고 모든 것을 인민의 리익에 복무하도록 하였다.

인민 보건에 대한 당의 지극한 배려는 국가 예산 지출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는바 1961년에 지출된 보건 사업비는 1946년에 비하여 실로 227.6배나 장성되였다.

당과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깊은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인민 보건 사업에서는 오늘의 찬란한 성과들이 이룩되였고 사람들에게 무병 장수하는 행복한 생활이 마련되였다.

우리 나라 의학 발전에서의 빛나는 성과들은 인민 보건 건설에서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과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

당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보건 사업을 발전시키며 특히 우리 나라의 기후 풍토, 인민의 체질, 건강 상태에 적응하게 보건 사업을 조직하고 과학 연구 사업을 그에 복종되도록 추진시켜 왔다.

우리 당의 이러한 정확한 립장은 현대 의학과 함께 동의학을 발전시키며 민간 료법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할 데 대한 방침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수천 년의 유구한 전통을 가진 우리

나라 동의학은 조선 인민의 력사적 실천가운데서 창조되고 발전되여 온 의학이다. 뿐만 아니라 동의학은 높은 과학성과 독창적인 리론 체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더욱 귀중하다. 약 500년전에 금속 활자로 출판된 세계 최초의 대의학 백과 전서인 《의방 류취》, 동의학의 성과를 개괄하고 체계화한 허준의 《동의 보감》 등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는 일찍부터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과학적 업적들이 매우 많다.

우리 나라에서 축적된 경험은 현대 서양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수다한 문제들을 동의학이 성과적으로 풀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현대 서양 의학에서 선진적 방향으로 되고 있는 통일된 유기체의 변화로서의 질병 현상에 대한 리해, 질병을 보지 말고 환자를 보라는 견해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 동의사들의 사업에서 철칙으로 되여 왔다. 진단과 치료에서의 개별화의 원칙은 우리 나라 동의학에서 전통적인 방향이였으며 19세기 우리 나라의 저명한 의학자 리 제마의 《사상 학설》에는 이 사상이 아주 특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동의학에서는 섭생(예방)을 치료에 선행시키는 훌륭한 전통이 이룩되였으며 약제의 선택에 있어서도 보혈 강장하는 의약품들이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당은 서양 의학과 동의학을 결합시켜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의사들의 창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 왔다. 당은 서양 의학만을 과학으로 인정하고 동의학을 과소 평가하는 그릇된 사상 경향들과 날카로운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동시에 의사들이 동의학을 배우며 동의사들과 창조적 합작을 하도록 지도하였다.

이리하여 동의학 발전에 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전체 보건 일'군들속에 침투 관철됨으로써 교조주의와 신비주의가 산산이 분쇄되고 우리 나라 의학 과학 앞에 새로운 발전의 시기가 열려졌다.

최근 우리 나라의 림상 실천에서와 과학 연구 사업에서 이룩되고 있는 모든 성과들은 거의 례외 없이 동의학의 발전과 관련되고 있다. 이것은 현대 의학과 함께 동의학을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오직 이 길을 통하여서만 우리 나라 인민 보건과 의학 과학이 급속히 개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의학 과학 기술에서의 새로운 경지의 개척, 난치의 병들로 알려지고 있던 허다한 질환들의 성과적인 치료 등 인민 보건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성과들은 또한 우리 당이 보건 일'군들을 당과 인민에게 충실한 붉은 전사로 교양 육성한 결과에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보건 일'군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관대하게 포섭하며 혁명 과업 실천을 통하여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현명한 방침을 취하였다.

보건 일'군들 속에서 강력하게 전개된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통하여 그들 속에 남아 있던 인명에 대한 랭담한 태도, 기술 지상주의, 보수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 잔재는 청산되고 새로운 공산주의적 사상 의식과 도덕적

품성이 확립되게 되였으며 특히 혁명 전통 교양에 의하여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사랑으로 일관된 고매한 혁명 정신이 꽃피여 오르고 있다.

《의사는 의사이기 전에 먼저 환자의 벗이여야 하며 생활에 대한 진실한 리념의 소유자이여야 한다》—이것은 오늘 우리 나라 보건 일'군들의 생활상 신조로 되고 있다.

보건 일'군들의 환자들과의 사업은 단순한 기술 실무적 사업이 아니라 산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되였으며 그들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장래 운명에 대하여서까지 책임지는 립장에 확고히 서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의 보건 일'군들 속에서는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인간 생명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피도 심장도 아끼지 않는 공산주의적 품성으로 하여 위급하게 된 환자의 생명을 구원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무수히 속출되고 있다.

전신에 3도의 화상을 입어 빈사 상태에 빠진 한 소년에게 수십 명의 집단이 자기 살을 떼 주어 그 생명을 구원해 내고야 만 병원 일'군들과 의대 학생들, 뼈의 재생 기능을 잃은 환자에게 자기들의 뼈를 이식해 주고, 소생할 가망이 없는 악성 빈혈증의 환자에게 집단적으로 자기들의 골수를 옮겨 넣어 준 의료 일'군들, 이러한 아름다운 소행들은 우리 나라 도처에서 만발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모든 의사와 간호원들이 공산주의적 사상과 도덕적 품성을 소유하고 환자를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 바쳐 공산주의적으로 일할 때 못고칠 병이란 없을 것이라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의 정당성을 더욱 확증하여 주고 있다.

* *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하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우리 나라 인민 보건과 의학 과학의 앞날은 더욱 휘황하다.

우리 당은 7개년 계획 기간에 보건 건설 분야에서 더 큰 과업을 완수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방조를 주기 위하여 의사 담당 구역제가 실시되며 의사수는 4.4배로 장성되여 주민 1만 명당 17명의 의사가 차례지게 된다.

의학 과학과 기술 발전에서도 더욱 큰 성과가 이룩될 것이다. 현대 의학과 동의학을 발전시키는 당의 방침을 계속 관철함으로써 사람들의 건강 보호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과학 기술적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리병률이 높고 고치기 힘든 많은 질환들이 철저히 치료 극복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달성한 모든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앞으로 더욱 큰 승리를 가져 올 것이다.

당 생활 강화에서 당적 분공과 당 생활 총화가 가지는 의의

조 승 훈

당을 구성하고 있는 매개 당원들의 당 생활이 건전함이 없이는 당은 강유력한 불패의 당으로 될 수 없으며 자기 앞에 제기된 혁명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3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에서 당 사업의 기본 고리는 당원들의 당 생활을 옳게 지도하는데 있으며 당 건설의 기초도 바로 당 생활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전원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결론은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함에 있어서 거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전원 회의 이후 각급 당 조직들이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따라 당 생활 지도에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당원들의 당 생활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당 사업과 혁명 과업의 모든 문제 해결에서 만병 통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당 생활이 강화됨으로써 당 조직들에서 사람들과의 사업, 특히는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간부 원천이 더욱 풍부해지고 당 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원만히 풀려 나가고 있다.

당 생활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사업이 강화됨으로써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당원들이 다 움직이게 되고 혁명 과업 수행에서 그들의 선봉적 역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리하여 그들은 당 앞에 제기된 어떤 어려운 혁명 임무도 능히 풀어 나갈 수 있게 되였다.

또한 당 생활이 강화됨으로써 당의 사상 의지의 통일과 그의 전투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리하여 당 생활은 《…우리 당으로 하여금 움직이는 당, 전진하는 당으로 되게》(《당 사업에서 주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교양하고 개조하며 단결시키는 것이다》) 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당 생활이 당 건설의 기본 출발점으로 되며 모든 사업에 당 생활을 선행시킬 때만이 당 사업과 혁명 과업의 수행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 각급 당 조직들 앞에는 당 생활을 계속 강화하여야 할 긴절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당 생활—이것은 곧 당 조직 생활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조직 생활이란 당원들이 당에서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것은 당원들의 정치 생활이며 혁명 활동입니다》(《당 조직 사업과 사상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당원들의 정치 생활, 혁명 활동은 그들 모두가 당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동시에 당 조직들이 그들의 당 생활을 옳게 조직 지도함으로써 철저히

보장될 수 있다.

당 조직들에서는 당원들이 항상 당적 분공을 받고 그 실행 정형을 보고하며 다시 새 과업을 받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지도 방조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당적 분공과 당 생활 총화이다.

* *

당적 분공을 통해서 전체 당원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들을 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입하는 것은 당을 강화하고 그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이 당적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조직 지도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포에 속한 모든 당원들이 자기가 맡은 당적 분공을 잘 수행하면 세포가 자기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위원회들에서 위원들이 자기가 맡은 분공을 잘 수행하면 위원회가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당적 분공은 그 내용과 형식에 따라 고정적 분공과 림시적 분공, 정치적 분공과 경제적 분공, 지도적 분공과 자체 수양을 위한 분공 등 다양하게 조직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분공들은 호상 련관되고 밀접히 결합되여 있다.

당원은 누구나 다 혁명 임무 수행에서 일정한 고정적 분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원들은 고정적 분공과 함께 당면한 혁명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그시 그시, 필요에 따라 림시적 분공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100만 당원이 항상 혁명을 위하여 머리를 쓰고 온갖 창조적 지혜를 다할 수 있으며 정치 활동가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옳게 수행할 수 있다.

당적 분공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함에 있어서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정치적 분공과 경제적 분공이다.

정치적 분공이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대중 속에 해설 침투시키며 혁명 과업 수행에로 당원 및 비당원 근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며 뒤떨어진 사람을 교양 개조하는 등의 과업을 위임하는 것이며, 경제적 분공이란 당면하게 제기되는 경제 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그 실행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기 위한 과업을 당원들에게 분담하는 것이다.

이 두 분공은 호상 밀접히 결합되게 조직되여야 한다. 왜냐 하면 혁명 과업 수행에서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은 정치적 분공에 의한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며 당 정책 실현을 위한 어렵고도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이끌고 나아가는 경제적 분공과 결합되여야만 충분히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적 분공은 행정적 분공과 엄밀히 구분되여야 한다.

당적 분공을 행정적 분공과 엄밀히 구분하지 못할 때에는 당 위원회들이 행정을 대행하거나 행정 경제 사업을 고정적으로 분공 받은 당원들의 자립적 역할을 마비시킬 수 있다.

당적 분공이 행정적 분공과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당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로부터 오는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은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선진 분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모든 조직들에 대한 령도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당 조직들은 당면한 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생산을 보장하고 그것을 정치 조직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당적 분공을 조직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당 조직들은 맑스-레닌주의적 통찰력과 예견성을 가지고 혁명 과업 수행에서 당면하게 걸리고 있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 그리고 미리 앞을 예견하고 부닥칠 수 있는 난관들을 풀어 나갈 수 있다.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함에 있어서 정치적 분공과 경제적 분공 뿐만 아니라 지도적 분공과 자체 수양을 위한 분공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은 비록 선진 분자들의 조직이기는 하지만 그를 구성하고 있는 당원들의 준비 정도는 각이하다.

당원은 누구를 불문하고 군중을 설복하고 조직하고 동원할 줄 알아야 하며 혁명가로서의 자기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자체 수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원들, 특히는 간부들의 지도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도적 분공과 그들의 자체 수양을 위한 분공이 옳게 배합됨으로써만 그들의 당 생활 수준을 부단히 높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당적 분공은 당원들로 하여금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항상 사고하고 움직이며 모든 사업에서 선봉적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본 조건으로 된다.

당원들은 당적 분공을 받음으로써만 당 규약상 의무 수행에서 일정한 목표와 방향, 그리고 책임성을 가지고 그의 실천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하게 되며 그를 통하여 혁명에 리익을 주려는 혁명가적 태도가 더욱 자라나게 된다.

이리하여 그들은 당적 분공을 실행하는 투쟁 행정에서 당을 무한히 사랑하며 당을 위해서는 어떤 간난신고도 무릅쓰고 투쟁해 나아갈 각오를 가지며 당의 리익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싸울 수 있는 불굴의 투사로 육성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 당 정책을 대중 속에 해설 침투시키며 그들과 토의하고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방도를 찾아 내며 항상 어려운 일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게 됨으로써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의 창발성이 발휘될 수 있으며 그들의 선봉적 역할이 급속히 높아질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 조직들이 당원들에게 당적 분공을 명백히 주고 혁명 과업 수행에서 걸린 문제를 옳게 풀어 나간다면 당 앞에 제기된 어떤 어려운 혁명 임무도 성과 있게 수행될 것이다.

당 조직들은 우선 당원들이 규약상 의무를 일상 사업과 생활에서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그들 속에서 당 규약의 연구를 조직하고 그들의 성격, 체질, 취미, 능력과 수준에 맞게 당적 분공을 주어야 하며 그것도 처음에는 간단한 것으로부터 점차 힘든 것에로, 단순한 것으로부터 점차 복잡한 것에로 그의 요구를 부단히 높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특히 고정적 분공과 림시적 분공, 정치적 분공과 경제적 분공을 옳게 배합하며, 그리고 그들의 당 규약상 의무 수행에서 약한 고리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지도적 분공과 자체 수양을 위한 분공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당원들의 당 생활은 당적 분공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당적 분공은 당 생활 조직에서 그 전제에 불과하다.

분공을 한 다음에는 그 실행 정형을 검열하고 지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 조직들은 항상 당원들의 당적 위임 실행 정형을 알아 보고 그것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며 그 분공 집행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당원들의 당적 분공 실행 정형을 항상 장악하고 지도 통제할 수 있으며 그들의 당 생활 수준을 계통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당원들의 당적 분공 실행 정형을 지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당 생활 총화가 가지는 의의는 실로 거대하다.

* *

당 생활 총화는 당원들로 하여금 당 규약상 의무에 기초해서 당에서 받은

고정적 분공과 림시적 분공 즉 자체의 정치 경제적 활동에서 당적 위임 실행 정형을 검토하고 총화할 수 있게 한다.

그들은 자체의 당 생활을 총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적 분공이 제때에 실행되고 혁명에 도움이 되였는가를 검열받고 그에서 나타난 결함을 제때에 시정 받게 됨으로써 당 규약상 의무 수행에 무한히 충실하게 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은 다 의식적 분자들이지만 절대적으로 준비된 완전 무결한 사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불문하고 부단히 자체를 교양하지 않으면 과오를 범할 수 있으며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당 생활 총화는 당원들의 당 생활에서 긍정적인 것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해주며 그것을 모든 당원들이 배우도록 조장 발전시키며 부정적인 점을 동지적인 충고와 비판을 통해서 극복 시정케 함으로써 당원들의 당 생활을 부단히 강화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당원들의 의식성과 자각성을 더욱 높이며 혁명가로서의 준비를 부단히 완성할 수 있게 하여준다. 이러한 당 생활 총화를 통하여 당원들 속에서는 혁명 과업 수행에서의 무책임성을 비롯하여 보수주의와 소극성, 부화와 안일, 해이와 동요 등 일체 불건전한 요소들이 제거될 것이며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서슴 없이 바치는 혁명가적 기풍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

특히 간부들의 당 생활 총화는 당 생활 강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간부들은 혁명의 지휘 성원이다. 그들은 당 세포와 위원회에서 당 조직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이 세포 생활과 당 위원회를 통한 당 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지휘 성원으로서의 당적 위임 실행 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함으로써만 그들의 지휘 능력의 배양과 혁명 과업의 수행을 옳게 보장할 수 있다. 동시에 이것은 세포 내 전반적인 당원들의 당 생활 수준을 급속히 제고하는 결정적 담보로 된다.

당 생활 총화는 당 조직들의 당 사업 수준과 그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게 함으로써 혁명 과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당원은 당 정책을 선전하며 그의 관철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 투사들이다.

당 생활 총화에서는 다만 당원들의 정치 생활 뿐만 아니라 혁명 활동을 총화하게 됨으로써 당 조직들의 사업 정형과 사업 방법, 그리고 혁명 과업 수행에 대한 지도에 이르기까지 다 론의하게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 생활 총화를 잘 하면 당 조직들이 사업에서 발로하고 있는 결함들을 제때에 발견하고 그의 극복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 생활 총화는 당 조직들로 하여금 자체 사업에서 결함을 고치고 경험을 일반화할 수 있게 하며 혁명 과업 수행에서 그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당 생활 총화가 강화되면 될수록 당원들의 혁명 임무 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비당원 군중들 속에서 그들의 지도적 역할이 더욱 제고될 것이다. 이것은 필연코 당 조직들의 당 사업 수준과 혁명 과업 수행에서 그들의 지도적 역할을 급속히 제고할 수 있게 하여 준다.

당 생활 총화는 또한 당 조직들로 하여금 당원들의 당 생활 체계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당 생활 총화는 당원들의 당 생활 정형을 료해하고 그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보급 일반화하며 결함을 시정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당 조직들은 이 행정에서 당원들이 어떤 병에 걸려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그들의 당 생활을 어떻게 강화하겠는가 하는 지도적 방침을 옳게 수립할 수 있다.

당 생활 총화는 매월 정기적인 당 세포 총회를 계기로 당 세포 위원회 또는 당 분조들에서 진행하되 위원회, 분조들에서는 회수에 구애될 수 없다. 그것은 위원회나 분조들에서는 필요에 따라 제때에 모여 앉아 서로 당 생활을 동지적으로 따뜻하게 지도 방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생활 총화는 세포 위원장이 당원들의 당 생활 정형을 종합하여 보고할 수도 있고 당원 스스로가 자체의 당 생활 정형을 보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효과적인 것은 당원 자신이 스스로 자체의 당 생활을 총화하는 것이다.

당원은 모두다 자원적으로 당에 들어온 혁명 투사들인 것만큼 자체의 당 생활을 스스로 조직하며 검토 총화하는 습성을 배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 생활 총화는 검토식으로가 아니라 모든 당원들이 꺼리낌 없이 말하며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 생활을 제도화하고 습성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매개 당원들이 당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당 세포들에서 그들의 당 생활을 정상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직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개 당원들이 당 규약상 의무를 일상 사업과 생활에서 철저히 실천하도록 제도화하고 습성화하는 데 있어서 당적 분공과 당 생활 총화가 노는 역할은 매우 크다.

당 조직들은 당 생활 지도에 계속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당 사업, 혁명 과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옳게 풀어 나갈 것이다.

간부들의 리론 학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간부들의 리론 학습을 강화하는 것은 조국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간부들은 우리 당의 핵심 력량이며 우리 혁명의 지휘 성원이다. 당은 사회의 발전 법칙에 엄밀히 립각하여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며 간부들을 통하여 그것을 대중 속에서 관철한다. 따라서 간부들이 사회 발전, 혁명 발전의 법칙에 대한 지식을 주는 맑스-레닌주의에 정통하면 할수록 당의 로선과 정책의 본질을 더 잘 리해하고 그에 엄밀히 립각하여 사업을 확신성 있게 조직 집행할 수 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로서 여기에는 조선 혁명의 구체적 문제들, 인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정확히 반영되여 있으며 당면하게 해결하여야 할 성숙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제시되여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간부들이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하지 못할 때는 당의 로선과 정책이 어떤 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나라의 어떤 구체적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작성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접수하고 집행하는 실무주의자로 전락되여 사업에 적지 않은 저애를 주게 될 것이다.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할 데 대한 과업은 정치, 경제, 문화 및 과학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간부들에게 해당된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어느 분야에서 일하거나를 막론하고 자기의 전문 분야에만 국한되여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협소한 일'군으로 되여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자, 로동당원은 자기가 종사하는 부문의 전문가로 되는 동시에 사회의 발전 법칙을 알고 그것을 리용할 줄 알며 나라의 운명, 당의 로선과 정책의 운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하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력을 쏟아 바치는 열렬한 혁명가로 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이러한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창건 첫날부터 간부 대렬을 당성이 강한 우수한 일'군들로써 튼튼히 꾸리는 사업과 함께 그들 속에서의 당 정책과 맑스-레닌주의 교양 사업에 심중한 관심을 돌려 왔다.

이리하여 최근 년간에 와서 우리의 간부 대렬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히 꾸려졌으며 그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열성적으로 사업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 절대 다수는 해방 전에 배우지 못하였으며 해방 후에도 맑스-레닌주의 소양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그리 많이 가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데다가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는 비상히 빠르고 당장 해결하여야 할 과업들이 련이어 제기되는 조건에서 발전하는 현실과 간부들의 지도 수준 간에는 일정한 불일치가 조성되

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이 더욱 심화 발전됨에 따라 더욱 참을 수 없는 현상으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가 처한 이러한 현실로부터의 출로는 오직 전 당이 학습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전 당이 다 맑스-레닌주의를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물을 유물 변증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발전 법칙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하여 맑스주의 철학을 배워야 하며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 법칙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학을 배워야 합니다》(선집, 제 6권, 514페지).

우리 당은 전국적 범위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후, 조성된 새 환경에 적응하게 일'군들의 지도 수준을 급속히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였던 그 때에,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전 당이 학습할 데 대한 구호를 제기하고 당원들 속에서 당 정책과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강화할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리고 력사적인 우리 당 제 4차 대회는 지난 기간 당내 교양 사업에서 달성된 성과를 총화하고 전 당이 학습할 데 대한 구호를 계속 철저히 관철할 것을 각급 당 조직과 당원들의 주요한 혁명 과업으로 제기하였으며 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3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는 황남도 당 조직들의 산 교훈에 기초하여 이 과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 것을 다시 한 번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내에서는 전체 당원들, 특히 간부들이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당 정책과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하는 기풍이 확립되였으며 이것을 통하여 그들의 정치 리론 수준은 급속히 제고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최근 우리 당은 간부들의 리론 학습을 강화할 데 대하여 더욱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현 발전 단계와 나라에 조성된 정치 정세가 간부들의 정치 리론 수준을 급속히 제고할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는 방대한 규모로 발전하고 그의 내부적 련계는 더욱 째위졌으며 인민 대중의 사상 의식과 문화 수준은 전에 없이 제고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는 7개년 계획의 웅대한 과업이 제기되여 있으며 당면하여 6개 고지 점령을 위한 최후 돌격전이 치렬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의 간부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 법칙을 더 잘 리해하고 그에 의거하여 인민 경제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내부에 잠재하고 있는 예비와 가능성들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며 발전된 현실에 맞게 관리 운영 수준을 높이고 사업 방법을 개선할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고지 점령을 위한 상반년 총화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우리의 일부 당, 국가 및 경제 기관과 기업소 지도 일'군들은 일을 벌려만 놓고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지 못하였으며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는 데 덜 관심하였으며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자기 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지 못함으로써 응당 더 거둘 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엄연한 현실은 우리의 일부 간부들이 맑스-레닌주의 리론 수준이 낮은 데로부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하게 받아 물지 못하며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여 주고 있다.

대중 운동에 대한 지도 문제를 념두에 둘 때 우리는 이러한 부족점을 더욱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공산주의 학교로서 광범한 군중을 망라하고 있으며 그들 속에서 로동 계급의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면서 있다. 그러나 일부 일'군들은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을 높이기 위한 맑스-레닌주의 선전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의연히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선동 일면에만 치중함으로써 이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일부 일'군들이 맑스-레닌주의 선전 사업을 통하여 근로자들 속에 로동 계급의 세계관을 확립할 때만이 이 운동의 성과가 더욱 공고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된다는 진리를 모르는 데서와 다음으로는 그러한 선전 사업을 해야 하겠는데 그들 자신이 높은 맑스-레닌주의적 리론 수준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다.

현 시기 간부들의 맑스-레닌주의 리론 수준을 급속히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은 또한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 정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여 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국내외 정세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가 확고해지면 질수록 적들의 발악은 더욱더 악랄해지고 있다.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미제와 그의 주구들은 한편으로는 전쟁 준비를 로골적으로 진척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인민에 대한 사상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찌또 도당을 비롯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또한 발광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본질을 외곡하면서 제국주의 앞에 굴종하고 그의 얼굴에 분칠을 하며 인민들 속에 불건전한 양풍을 전파시킴으로써 그들의 혁명 정신과 투쟁 의욕을 마비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 놈들의 이러한 책동은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들의 사상 공세에 못지 않게 아주 위험한 것이다. 만일 수정주의와 불건전한 양풍이 들어 오면 인민들 속에서는 해이성과 권태증이 일어 날 수 있으며 이것이 일어 나면 수정주의는 거기에 발을 붙이고 우리의 혁명 사업에 커다란 해독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모든 간부들은 오직 맑스-레닌주의 혁명 리론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무장함으로써만 적들과의 정치 사상적 투쟁에서 맑스주의의 순결성을 견결히 고수할 수 있으며 최후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조선 혁명을 끝까지 추진시킬 수 있다.

간부들의 정치 리론 수준을 급속히 제고함에 있어서 현 시기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맑스-레닌주의 고전들에 대한 학습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고전들에는 사회 발전과 혁명 발전의 제 법칙들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축적된 풍부한 경험, 기회주의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 경험들이 일반화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 고전들에 대한 연구는 간부들에게 과학적 세계관을 주는 동시에 조선 혁명, 그 중에서도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능숙하게 지도할 수 있는 명백한 지침을 주며 맑스주의의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혁명적 원칙성을 고수할 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준다.

맑스-레닌주의 고전들에 대한 학습은 그에 담겨져 있는 개개의 결론과 원칙들을 맹목적으로 암송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데까지나 그의 본질을 철저히 체득하며 그것을 실제 사업에 능숙하게 적용할 줄 알 것을 요구한다.

그런 것만큼 맑스-레닌주의 고전들에 대한 학습은 응당 우리 혁명의 주체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현 시기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들을 위주로 하여 전면적으로, 체계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특히 《김 일성 선집》에 대한 학습은 맑스-레닌주의 고전 학습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할 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은 우리 당 건설, 우리 나라 혁명 발전, 우리 인민의

생활에 있어서 거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문헌이다. 이 문헌은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가 전면적으로 승리한 전 로정을 리론적으로 심오하게 분석 총화한 문헌이며 혁명 발전의 매 시기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천명한 강령적 문헌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당 제 4차 대회에서 진술한 김 일성 동지의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에 관한 보고는 조선 혁명의 전 과정, 특히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이 쌓은 풍부한 경험을 체계화하고 일반화하였으며 앞으로의 과학적인 투쟁 과업을 명시한 맑스-레닌주의적 문헌으로서 각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을 맑스-레닌주의 고전들과 밀접히 결부시켜 학습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당 로선과 정책의 창조적 성격과 우리 당 명도의 현명성을 참답게 리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당 정책에 구현된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으며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도 당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당적 사상 체계로 더욱 철저히 무장할 수 있으며 당 정책을 정확히, 창조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소유할 수 있다.

간부들의 리론 학습은 어데까지나 자습이 위주로 되여야 한다. 자습은 자기의 준비 정도에 따라 학습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체득한 지식을 더 잘 체계화하고 심화할 수 있게 하며 더 많은 학습 시간을 얻어 내여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만일 자습을 위주로 하지 않고 강의에만 의거할 때 그것은 다수 경우에 각자의 준비 정도에는 관계 없이 일률적인 지식을 주는 데 그치게 되며 학습 시간상으로 볼 때에도 적지 않은 제한성을 받게 된다. 더우기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전달 받는 것 등으로 학습을 대치하려 한다면 이것은 학습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의도와는 더욱 거리가 먼 것이다.

모든 간부들은 자체 학습에서 철저하게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자신의 준비 정도에 맞게 전망 자습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일단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악하게 달라 붙어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간부들의 리론 학습에서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되는 것은 광범한 토론과 론쟁이다. 토론과 론쟁은 당 정책을 더욱 심오하게 연구하고 리론적으로 파악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고를 심화하고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모든 사업 단위가 토론과 론쟁의 분위기로 들끓을 때 간부들은 자습과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더 정확히 리해할 수 있으며 그것을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실천적 방도까지도 찾아 낼 수 있다.

특히 중요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론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때라야만 해당 문제에 대한 깊은 리해를 가질 수있을뿐만 아니라 집단 내 성원들의 일치한 견해를 보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간부들의 리론 학습이 철저히 수행되는가, 안 되는가는 각자가 학습 시간을 어떻게 얻어 내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많이 달려 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간부들에게 있어서 일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학습하는 시간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일하면서 배워야 하며 배우면서 일하여야 한다.

특히 모든 간부들이 《김 일성 선집》을 비롯하여 현행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 맑스-레닌주의 고전들을 많이 읽어야 할 현 실정에 비추어 그 어떤 토막 시간이라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1930년대에 항일 빨찌산들은 원쑤들과의 힘에 겨운 간고한 투쟁 속에서도 가능한 모든 시간을 리용하여 학습하였다. 그들은 유격 근거지에서 일상적으

로 학습하였음은 물론 짧막한 전투의 휴식 시간에도 땅에 글을 써 가면서 공부하였고 행군시에도 동지의 뒤'등에 써 붙인 글을 읽어 가면서 공부하였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은 항일 빨찌산들의 이러한 학습 기풍을 본받아 일하면서 최대한의 시간을 짜내여 열심히 학습하여야 하며 길을 걸을 때나 차'간, 뻐스'간에서도 쉬임 없이 책을 읽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특히 책임 일'군들은 번잡한 회의와 문서 노름을 대담하게 축소하여 간부들이 학습할 시간을 적극 보장해 주어야 하며 짬이 있을 때마다 책을 읽는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간부들의 리론 학습에서의 성과 여부는 해당 당 위원회의 지도 통제 사업과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

모든 간부들이 자체의 학습 전망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끝까지 집행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 자신의 각오와 노력에 많이 달려 있지만 이것은 동시에 해당 당 위원회가 학습 규률을 강화하는가 안 하는가에도 적지 않게 의존한다. 그러므로 각급 당 위원회들은 당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지 않을 때는 투쟁하나 학습을 안 할 때는 융화 묵과하는 그릇된 현상을 근절하고 모든 간부들이 학습을 제 1차적인 혁명 과업으로 인정하도록 그들 속에서 사상 동원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학습을 태공하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당 정책 집행을 소홀히 하는 현상으로서 강력히 투쟁하여야 한다.

학습 규률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직 사업을 이에 병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매개 간부들이 전망 학습 계획에 기초하여 매일매일 정상적으로 학습하도록 일상적인 지도 통제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강연과 집필 사업 등에 자진하여 참가하도록 구체적인 분공을 주고 제때에 총화하며 한편으로는 그들과의 학습 담화를 수시로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간부들이 당 정책과 맑스-레닌주의 고전들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심오하게 리해하고 리론적으로 깊이 파악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간부들의 정치 리론 수준을 급속히 제고하는 것은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과 한시도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선차적인 과업이며 우리 당의 공고화와 조선 혁명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투적 과업이다.

각급 당 조직들과 그의 지도 일'군들은 간부들의 리론 학습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림으로써 조국의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위업에서 자기들에게 부과된 영예로운 임무를 더욱 원만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간부들의 리론 학습과 성 당 위원회

김 철 훈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제 4차 대회에서 《전 당이 학습하자》는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모든 간부들이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당 정책을 깊이 연구 체득할 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간부들의 학습에서 가장 주되는 문제는 맑스-레닌주의의 사상 리론적 내용과 본질을 심오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원리를 철저히 파악함으로써만 간부들은 그것을 우리 나라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 정책의 본질과 그의 정당성, 그리고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당이 제기한 혁명 과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확신성을 가지고 능숙하게 사업해 나갈 수 있다.

간부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문제는 국가 건설 위원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당적 임무로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당의 건설 정책을 관철함에 있어서 국가 건설 위원회가 처한 위치의 중요성과 사명에서 볼 때도 그렇거니와 지난 시기 간부 학습 지도에서 얻은 교훈에 비추어 볼 때에 더욱 그러하다.

당 대회가 있기 전까지만 하여도 국가 건설 위원회 당 위원회는 간부 학습을 매우 형식적으로 지도하여 왔다. 특히 학습에 대한 내용상 지도를 소홀히 하였으며 엄격한 자습 기풍을 세우지 못하였던 탓으로 하여 간부들의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리해가 부족하였으며 그들의 정치적 자질은 의연히 낮은 형편에 처하여 있었다.

그러한 결과 일부 간부들은 당 정책의 본질과 그의 내용을 깊이 리해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에서 중심이 없이 이것저것 어루 만지거나 대중 속에서 실속 있는 정치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부닥치면 주체성 있게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소극성과 보수주의, 지어는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에 사로 잡혀 난관 앞에서 주저하고 동요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실은 우리 당 제 4차 대회가 정당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간부들의 학습을 강화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해결함이 없이는 그들을 혁명적 사업 기풍과 방법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수 없으며 기본 건설 부문 앞에 제기된 혁명 과업을 능숙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당 위원회는 우선 간부 학습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이 사업을 당 위원회적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학습에 대한 그릇된 사상 관점을 바로 잡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모든 간부들이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 가는 임무》라는 인식을 철저히 가지도록 지도하였다.

이리하여 간부들 속에서는 학습에 대한 옳은 관점과 학습 기풍이 수립되기 시작하였으며 간부 학습에서 일정한 경험이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간부 학습에서 첫째 가는 과업은 간부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하신 바와 같이 혁명적 정신이 없이는 혁명적 사업 방법이 나올 수 없다.

오직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무장함으로써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당적 원칙을 고수할 줄 알며 로동 계급의 립장에 서서 혁명의 리익을 옹호하는 불굴의 투사로, 열렬한 정치 활동가로 될 수 있으며 혁명적 사업 방법을 옳게 구현할 수 있다.

당 위원회는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이 진리를 더욱 절실하게 체험하였다.

한때 국가 건설 위원회에 잠입하였던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의 해독적 행위에 대하여 그것을 옳게 식별할 줄 몰랐거나 설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때에 극복하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일부 일'군들이 확고한 당적 립장에 서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였던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여 있었다.

물론 최근에 와서 국가 건설 위원회는 당성이 강하며 실지 사업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우수한 일'군들로써 튼튼히 꾸려졌을 뿐만 아니라 당에 충실하려는 그들의 열성은 대단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일부 일'군들이 당 정책에 튼튼히 의거하여 사업할 줄 모르며 그의 집행을 위한 투쟁에서 견결하지 못하며 사소한 편향과도 타협 없는 사상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은 것은 바로 그들을 당적 원칙성으로 교양하지 못한 뚜렷한 표현이였다.

당 위원회는 이러한 교훈에 비추어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을 간부 학습에서 가장 중심적인 과업으로 내세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 원리에 대한 학습은 짧은 기간에 깜빠니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어데까지나 체계적으로, 전망성 있게 끌고 나가면서 동시에 당면한 혁명 과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목적 지향성 있게 진행할 때만이 비로소 간부들의 정치 리론 수준을 계통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또한 그에 대한 리해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로부터 당 위원회는 우선 간부들의 수준을 전면적으로 료해 장악한 기초 우에서 그에 적응한 장기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매 개인이 2년 간의 전망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당 대회 문헌과 현행 당 정책을 깊이 연구시킬 목적으로 필요한 리론 문제들을 가지고 보충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자습에 대한 지도와 집체적인 방조를 배합 조직하였다.

당 대회 문헌 학습을 맑스-레닌주의 고전과 밀접히 결부시켜 조직한 것은 매우 경험적이였다.

대회 문헌을 맑스-레닌주의 제 원리들과 결부하여 연구함으로써 우리 당 정책의 리론적 기초와 그의 창조성을 옳게 해명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당 정책의 정당성,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였다. 또한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을 놓고 맑스-레닌주의 원리들을 연구함으로써 어려운 리론 문제들도 비교적 쉽게 리해할 수 있게 하였다.

례하면 《국제 로동 운동 및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을 학습할 때 《기회주의를 반대하기 위한 레닌의 투쟁》, 《계급과 계급 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 《사회주의 혁명에서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 등 맑스-레닌주의 원리에 대한 보충 강의와 그에 기초한 학습 토론을 옳게 조직함으로써 국제 로동 운동 및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 로선의 정당성을 더욱 깊이 인식시킬 수 있었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 부문에 대한 학습을 진행할 때에도 《기술 혁신 운동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 《사회주의 하에서의 독립 채산제와 내부 채산제》 등 당면 문제를 푸는 방향에서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을 병행하여 조직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간부 학습의 내용을 장악하고 목적 지향성 있게 학습을 조직한 결과 간부들의 당 문헌에 대한 연구 태도가 보다 심중하여졌으며 사업에서도 보다 원칙성이 강해졌으며 창조적 사업 기풍이 점차 발양되기 시작하였다.

간부들 속에서 주체를 확립하며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학습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험은 이러한 혁명 정신을 배양함으로써만 맑스-레닌주의 학습에 대한 옳은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배운 리론을 자기 사업에 옳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당 위원회는 학습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주체 확립과 자력 갱생의 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교양 사업을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집중적으로 조직 진행하였다.

그러한 결과 지난 시기 일부 간부들 속에서 우리 나라의 기후 풍토와 생활 풍습, 지방적 특성 등을 고려함이 없이 설계를 만들거나 시공을 지도함으로써 건설에서 필요 없는 허식과 랑비 현상을 가져 오던 현상들이 완전히 시정되였다.

또한 간부들은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자력 갱생의 정신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품성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과 완전히 일치되는 혁명 정신이라는 것을 더욱 명백히 인식하게 되였다.

지난 해 건설 위원회 앞에는 방대한 기본 건설 과업이 제기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방대한 철재, 목재,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 자금, 로력을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받음이 없이 자체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였다. 일부 간부들 속에서는 이 난관 앞에서 동요하거나 주저하는 경향까지 발로되였다.

당 위원회는 일부 일'군들의 이러한 태도는 구체적 타산을 하지 않고 자체의 력량을 믿지 않는 낡은 사고 방식에서 온다는 것을 포착하고 자립 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합

법칙적 요구이며 이것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에 기초한 우리 당의 가장 정확한 경제 건설 방침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자력 갱생의 정신과 밀접히 결부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하면서 간부들과 전문 기술 일'군들의 지혜를 조직 동원하기 위한 조직적 대책을 이에 배합시켰다.

이 행정에서 간부들은 자력으로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로동당원들의 옳은 립장이며 따라서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대중과 토의만 하면 얼마든지 예비가 솟아 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으며 결국 많은 창발적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결과 철골 구조 대신에 철근 콩크리트 구조를 창안해 냈으며 사석 언제가 도입되고 부재 생산이 전문화되였다. 설계 일'군들은 이미 작성된 설계를 주체적 견지에서 재검토하여 막대한 예비를 찾아 내였다. 그리고 2.24 방수제를 비롯한 허다한 지방 건재 원천이 탐구 동원되여 건설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 났다.

이 모든 성과들은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을 통하여 간부들이 우리 당 정책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였으며 주체의 사상과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이 그들 속에 확립되게 된 결과에 얻어진 것이다.

간부 학습에서 또한 주요한 것은 현행 당 정책에 대한 집중적 학습이다.

현행 당 정책은 우리 나라 혁명의 매 시기에 성숙된 객관적 요구를 반영한 당면한 우리의 사업 방향이며 행동의 지침이다.

그러므로 모든 간부들은 현행 당 정책을 지체 없이 철저히 연구하여야 하며 조급성을 퇴치하고 완전히 그의 본질과 수행 방도를 리해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비추어 당 위원회는 집중 학습을 조직함에 있어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구체적인 실천 활동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학습한 내용이 곧 실천에 옮겨지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다.

경험은 이 사업을 짜고 들어 준비하며 자체 실정에 비추어 해결하려는 중심 방향을 옳게 세우는 동시에 당 정책의 본질을 리해하는 데로부터 시작하여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토론을 준비하는 행정을 잘 지도 방조할 때 비로소 학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례하면 대안 전기 공장에 대한 현지 지도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학습함에 있어서 당 위원회는 해당한 계획서를 면밀히 작성하고 학습 방향과 방법상 문제, 학습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중심과 그에 기초한 토론 제목을 제시하였으며 계획에 예견된 대로 간부들과 당 위원회 위원들을 분세포에 파견하여 학습에서 요구하는 기본 문제가 해명되고 해결 방도가 탐구될 때까지 계속 집중 토론을 하도록 지도하였다.

이 행정에서 건설을 정상화하며 건재 생산 조직과 공급 체계를 확립하며 건설에 대한 지도 체계 및 기업소의 관리 운영 체계를 개선할 데 대한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당 위원회는 제기된 문제를 종합하여 그의 해결 대책을 토의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행정적인 제반 대책을 강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분세포들에서 할 일을 규정하고 그것을 당원들에게 다시 분공 주어 추진시키는 등 조직적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간부들 속에서는 학습이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 고리라는 인식이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으며 결과 학습과 사업에서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간부 학습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들 속에서 자습 기풍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학습은 그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간부들 자신이 혁명 실천의 필수적 요구로서 자각적으로 진행할 때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학습 조건이 구비되여 있다 할지라도 간부들 자신이 자각적으로 동원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으로 될 것이다. 특히 현실 발전과 대중의 혁명적 기세에 비하여 간부들의 지도 수준이 뒤떨어져 있는 현 조건에서 주 1회씩 운영되는 학습회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당내 학습이 철저하게 자습을 위주로 하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간부들은 오직 자습을 위주로 하여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학습할 때만이 자기의 정치 실무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간부들 속에서 자습 기풍을 확립함에 있어서 국가 건설 위원회 당 위원회가 얻은 중요한 경험은 학습에서 책임 간부들이 이신작칙하는 문제이다.

책임 간부들이 학습하지 않고서는 당 정책 집행을 정확히 조직 지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부 일'군들에 대한 교양은 물론 그들의 학습에 대한 배려도 돌릴 수 없는 것이다.

당 위원회는 항일 빨찌산 지휘관들의 모범을 구감으로 하여 책임 간부들 자신이 학습에서 이신작칙함으로써만 전체 일'군들의 학습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포착하고 그들의 독서, 출연, 집필 등에 심중한 관심을 돌리였다.

특히 책임 간부들을 리론 보충 강의와 학습 담화에 적극 참가시키는 동시에 전망 학습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에 의거하여 맑스-레닌주의 고전과 김 일성 동지의 로작, 기술 문제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게 하는 독서 분공을 주는 것이 좋았다. 이것은 건설 위원회 내에서 자습 기풍을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였다.

이리하여 오늘에 와서는 책임 일'군들의 자각적인 학습 기풍이 전 집단에 일반화되여 모두가 매일 3시간 이상씩 학습하고 있으며 맑스-레닌주의 고전과 김 일성 동지의 로작, 매 시기의 당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색인표를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광범한 독서 분공이 조직되고 있다.

당 위원회가 학습 기풍을 확립함에 있어서 얻은 다른 하나의 경험은 학습 진행 정형을 그들의 당 생활과 밀접히 결부하여 정상적으로 지도 총화할 때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학습은 당 생활의 중요한 측면이다. 따라서 당적 분공의 첫자리에 학습이 와야 하며 당 생활 총화에서도 학습에 대하여 정확히 총화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당원들을 교양함으로써 학습 의욕을 더욱 높일 수 있었으며 학습에 대한 좋은 의견도 많이 제기될 수 있었다.

이리하여 매월 간부들에게 학습 과제를 주고 책임 일'군들은 당 위원회에서, 지도원급 간부들은 당 분세포들에서 책임지고 지도하며 학습 정형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총화하는 동시에 행정

부서들의 주간 사업 총화 시에도 반드시 학습 정형을 총화하는 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였다. 이와 같이 모든 간부들이 당 규약상 의무에 비추어 학습 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게 됨으로써 학습에 대한 책임성이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음은 물론 이 행정을 통하여 우수한 학습 경험들이 지체 없이 보급 일반화되여 간부들의 학습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학습 기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간부들의 학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사업 체계와 방법을 개선하며 기관 내의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간부들의 학습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담보로 된다.

학습하려는 간부들의 주관적 욕망과는 상관 없이 사업 방법이 졸렬하고 사업을 무질서하게 조직 진행한다면 무사분주만 하지 좀처럼 학습할 시간을 얻을 수 없으며 따라서 차일피일 밀려만 가기 마련이다. 당 위원회는 사업을 널어만 놓고 수습하지 않는 무질서한 현상과 완강하게 투쟁하면서 매월 행정, 근로 단체가 할 사업 방향과 방도를 제시해 주고 예견되는 중요한 행사 조직을 당 위원회의 유일 계획에 근거하여 고정화시키는 조치를 강구하였다.

또한 책임 간부들로부터 매개 지도원에 이르기까지 당 위원회의 이와 같은 통일적인 지도 방침에 근거하여 자기 사업을 시간별, 일별로 타산한 구체적인 주간 전투 계획에 의하여 사업하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사업에서 무질서를 제거하는 한편 번잡한 회의와 문서 노름을 극력 축소하고 매개인들의 사업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질서 정연하게 조직 진행하게 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쟁취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간부 학습을 말로써가 아니라 당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며 짜고 들어 구체적으로 조직해 주고 강력한 지도와 통제를 배합하며 당 및 행정 사업에서 질서와 제도를 세우고 사업을 정상화하며 책임 간부들 자신이 학습에서 이신작칙함으로써만 기관 내 전체 집단들 속에서 혁명적 학습 기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건설 위원회 당 위원회는 간부 학습을 조직 지도하는 분야에서 아직도 적지 않은 결함과 부족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당 위원회는 간부 학습에서 이미 얻은 초보적 성과와 경험을 공고 발전시키며 발로된 결함을 대담하게 시정함으로써 《전 당이 학습하자》는 당의 전투적 구호를 철저히 관철할 것이며 간부 학습에서 반드시 새로운 전변을 일으킬 것이다. 이리하여 간부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천리마의 속도로 진군하는 현실의 제 요구에 상응하게 한계단 더 높임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자기 사업을 더욱 원만히 조직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필자는 국가 건설 위원회 당 위원장임)

회화 창작에서의 전통과 혁신

조 인 규

우리 당은 문학 예술을 당과 혁명의 리익에 전적으로 복무하는 혁명적 문학 예술로,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부합되는 높은 사상-예술성을 구현한 인민적 문학 예술로 발전하도록 지도함에 있어서 고전 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 문제를 항상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문학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술도 당의 정확한 문예 정책을 받들고 민족 미술 문화 유산을 전면적으로 계승하며 그것을 인민들의 사상 미학적 요구에 적응하게 발전시킴으로써 빛나는 업적을 쌓아 올렸다.

오늘 우리 미술의 화랑은 천리마 시대의 거창한 기상과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구현한 인민상 계관 작품 《천리마 동상》, 《전쟁이 끝난 강선 땅에서》를 비롯하여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근로자들의 전형적 형상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15성상에 걸쳐 간고한 투쟁을 전개한 1930년대 공산주의자들의 불후의 모습을 보여 주는 기념비적 화폭들로 빛나고 있다.

그러나 지난 기간 미술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들은 결코 순탄한 로정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 혁명의 리익에 배치되는 온갖 반동적 문예 사상의 침습을 반대하며 문화 유산의 계승에서 그릇된 경향들을 극복하기 위한 완강한 투쟁과 유기적으로 련관되여 있다.

지난 시기 우리의 경험은 미술 창작에서 당성, 인민성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하여서는 형식주의, 자연주의 기타 온갖 부르죠아 문예 사상 잔재를 철저히 극복하며 허무주의, 복고주의 등 문화 유산 계승에 대한 그릇된 경향을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민족 문화 유산에 대한 정당한 계승과 그의 발전에 대한 문제는 남북으로 분렬된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오늘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은 조선 인민의 계급적 의식과 민족적 각성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반동적 부르죠아 문예 사상과 부패한 미국식 생활 양식을 강요하며 우리의 민족 문화 유산 가운데서 진보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것을 외곡 비속화하는 일방 낡고 반인민적인 것들을 리상화함으로써 무너져 가는 저들의 계급적 지반을 유지해 보려고 광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 문화 유산에 대한 허무주의적 및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는 것은 부르죠아 문예 사상을 배격하는 것으로 될 뿐만 아니라 미술 창작의 당성, 인민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과 직접적으로 련결되여 있는 것이다.

민족 문화 유산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태도는 과거 선조들이 남겨 놓은 그 많은 문화 유산 가운데서 진정으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것을 섭취 계승하며 동시에 그것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신하며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는 새로운 민족 문학 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고전 유산을 섭취 리용할 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자기의 고유한 문화 중의 우수한 점을 발양하고 약한 점을 극복》(선집, 제1권, 1955년 판, 103페지)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과거의 문화 유산과 그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할 데 대한 문제를 항상 시대적인 요구와 밀접하게 결부시켰다.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에서 과거의 훌륭한 문학 예술의 경험들과 성과들을 계승한다는 것은 항상 선행자들이 이루어 놓은 예술적 제 경험들을 자기 시대의 과업에 비추어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요소들을 보충하고 개작하여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을 조선적인 바탕 속에서 옳게 구현하며 현대성의 견지에서 고전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일련의 교시는 전체 미술가들의 창작 실천에서 철저히 의거하여야 할 지침으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8.15 해방 10주년 기념 미술 전람회를 관람하시고 조선화가들도 산수화 뿐만 아니라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더 많이 묘사할 것을 교시하였으며 우리 나라 민족 미술의 빛나는 전통으로 되고 있는 채색화(농채화) 부문을 더 많이 발전시켜 인민들의 장성된 미'적 요구에 보답할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교시를 받들고 당에 무한히 충실한 조선화가들은 대담하게 현실 속으로 들어 가서 풍경 화조에만 치중하던 경향을 일소하고 새로운 현실을 반영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고성 인민의 투쟁》, 《청년 건설장》, 《눈 내리는 아침》, 《수상 동지 현지 교시 받들고 지상 락원 이루세》 등은 모두 현실 반영의 심도와 그 예술적 형상의 높이로 하여 조선화의 전통적 수법에 새 시대가 요구하는 생활 감정을 훌륭하게 반영한 작품들이다.

조선화가들은 또한 조선화에서 현실적 주제의 해결과 함께 오랜 세월에 걸쳐 조선 인민들이 즐겨 그려 온 채색화의 경지를 대담하게 개척하는 데로 돌어 서게 되였다.

조선화에서의 채색화는 우리 나라 민족 미술의 빛나는 전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민들의 창조적 투쟁으로 들끓고 있는 현실이 이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생활에는 매일같이 다채로운 색들이 첨가되고 있다. 웅장하게 일떠선 공장과 도시들의 위용, 흰색이나 검은 색의 천박에 모르던 우리 인민들의 몸을 단장하고 있는 고운 색과 꽃무늬 아롱진 수백 가지 옷감, 그리고 다양한 색갈의 염화 비닐 제품, 황금산에 무르녹는 산과실의 아름다운 색갈 특히 환희와 랑만에 가득찬 인민들의 정서 등은 벌써 인민 생활과 풍습, 시대의 화폭이 새롭게 변천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도 자연도 몰라 보게 달라지고 그 속에 깃들어 있는 풍부하고도 명랑한 색들을 먹색 하나로 표현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회화에서 색채를 풍부히 한다는 것은 비단 조선화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 생활의 진실한 반영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미술 발전에서 제기된 합법칙적 요구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지난 시기 조선화 분야의 일부 작품들에서 나타났던 복고주의적 경향을 극복하는 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민족 미술 유산을 정당하게 계승 발전시킴에 있어서나 우리 미술의 당성, 전투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화에서 일부 수묵화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치도 수묵화를 조선화 전통의 주되는 것으로 인정하며 그것을 가장 심원한 예술적 경지에 오른 회화 형식으로 간주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화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수 많은 채색화에 의하여 빛나고 있다. 이미 3국 시기의 회화 특히 고구려 무덤 벽화들은 거의 전부가 채색화로서 그 높은 예술성으로 세계 인류 문화의 보물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신라 시기에 있어서도 솔거가 그린 소나무 가지에 산새가 날아 들었다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능히 이 시기의 찬란한 채색화의 발전을 짐작할 수 있다.

그 후 고려 시대에도 벽화, 인물, 풍속, 초상, 산수, 장식 등 다양한 쟌르들에 걸쳐서 훌륭한 채색화들이 창작되였는바 이러한 실정은 채색화가 우리 인민의 우수한 회화 전통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조 시기에 이르러서도 채색화는 새로운 사회 력사적 조건에서 계속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 미술의 사실주의적 발전의 력사를 빛나게 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란한 민족 회화의 전통을 수묵화에 귀착시키려고 하는 《수묵 상위론》(水墨上位論)은 조선 미술사에 대한 근시안적 고찰에 기초하고 있는 부당한 리론이다. 그것은 조선화의 전통을 어떤 협애한 테두리 속으로 끌어 넣으려는 것이며 력사에 대한 외곡이며 창작 실천상 극히 유해로운 견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수묵화나 채색화는 다 같이 회화의 범주에 속하는 조선화의(재료와 기법상 분류되는) 종류들이다.

회화는 색채, 명암, 선 등 다양한 물질적 표현 수단들을 소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색채는 회화 언어의 가장 중요한 부문이며 그 강유력한 묘사 수단으로 되고 있다.

회화는 현실 생활을 그의 색채적 풍부성에서 반영할 수 있는 예술의 기본 종류의 하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묵화는 색채적 표현의 가능성에서 극히 제한되여 있다. 흑색(먹)을 기본으로 하는 단색 수묵화는 물론이고 수묵 담채화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은 협소한 색채 묘사의 한계를 벗어 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먹에도 색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흑색(먹)에서 검은 색 아닌 다른 색소를 찾는다는 것은 황당한 시도이다.

먹물의 농담과 붓질의 강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검은 색채의 다양한 계조는 엄밀한 의미에서 명암의 변화에 불과하며 색채의 교체 및 배합과는 본질상 구별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조선화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채색화는 실로 무궁무진한 표현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색채 묘사의 범위는 널리 개방되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틀에 박힌 수법상 제약성에 구애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화의 기본은 선이라고 주장하는 그릇된 리론에 대해서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 견해는 본질상 《수묵 상위론》과

내통하고 있는바 수묵화의 기본적 표현 수단들인 먹색과 선의 의의를 일방적으로 강조한 결과에 나온 론단이다.

우리는 민족 회화의 전통에서 과거 선진적인 미술가들의 미학적 견해, 그들에 의해서 창조된 전형들과 함께 묘사 수단들의 체계, 형식상 우점들을 계승하여야 한다.

과거 우리 나라의 사실주의 화가들이 이룩한 우수한 표현 수단들 특히 조선화에서의 선의 중요한 역할과 비상한 표현력은 오늘 우리 미술가들이 심오하게 연구하고 섭취 계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화의 기본은 선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리론적으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문제 설정 자체가 일면적이며 형식 미학적 견지에 떨어지고 있다. 왜냐 하면 이 리론은 회화의 다른 중요한 묘사 수단들인 색채와 명암 등의 형상적 의의를 홀시함으로써 조선화의 풍부한 표현적 가능성을 협소화하며 화가들의 다방면적인 형상적 특성을 선이라는 표현 수단에 귀착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회화 예술에서 색채적 표현의 다양성을 홀시하고 조선화 창작에서 채색화 발전이 가지는 필연성을 망각하는 창작 태도로써는 로동당 시대의 영웅 서사시적 현실을 심오하고도 폭 넓게 그려 낼 수는 결코 없다.

조선화 분야에서 채색화를 위주로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는 당적인 우리 미술의 창작 실천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요구이다.

오늘 우리 앞에는 거창한 천리마 현실이 펼쳐져 있다. 이 현실이야말로 붉은 미술가들의 예술적 령감의 원천이며 창작의 모체이다. 우리의 천리마적 현실은 도처에서 기적들을 낳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불굴의 의지와 락천적 모습, 집단주의적 도덕이 구현된 무수한 사실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우리 미술가들은 이 거창한 현실 속에 깊이 침투하여 로동당 시대의 본질과 천리마 기수들의 영웅적 투쟁 모습과 고매한 정신 세계, 그들에 의해서 개조된 조국 산천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풍모를 심오하고도 다면적으로 형상화하여야 한다.

바로 우리들 앞에 제기된 이 보람찬 과업을 수행하며 날로 장성하는 근로자들의 미학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선화의 풍부한 예술적 형식과 사실주의적 표현 수단들을 적극 찾아 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민족 회화인 조선화 분야에서 풍부한 표현적 가능성을 소유한 채색화의 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이다.

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는 훌륭한 문학 예술 작품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부합되는 사상 예술성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찬란한 우리 민족 예술의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선조들이 남겨 놓은 아름답고 진보적인 모든 것이 우리 시대에 활짝 꽃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우리 미술가들은 이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당적 사상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당의 문예 정책 특히 1960년 11월 27일, 1962년 3월 11일에 전체 작가 예술가들에게 주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심오하게 연구 체득하며 혁명의 립장에서 우리의 민족 문화 유산을 옳바로 계승 발전시켜 민족적 풍격으로 빛나는 훌륭한 예술 작품을 더 많이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

남조선에서의 토지 문제

리 룡 필

일반적으로 토지 문제의 해결은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들에서 중요한 혁명 과업의 하나로 된다.

그것은 인구의 절대 다수가 봉건적 토지 소유에 기초한 착취 관계에 얽매여 있는 데서 뿐만 아니라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가 외래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더욱 유지 강화되고 있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식민지 반봉건 사회인 남조선에서의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는 미제의 식민지 통치의 거점의 하나로, 그의 식민지 략탈을 보장하는 물질적 지반으로 되고 있으며 남조선에서의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억제하며 나아가서는 남조선의 사회 발전을 저애하는 질곡으로 되여 있다.

남조선에서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빨리 청산해야만 쇠퇴한 농업이 발전할 수 있고 령락된 농민들의 생활이 개선 향상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파탄된 민족 공업의 발전과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 놓을 수 있다.

또한 토지 문제의 민주주의적 해결은 로농 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하며 앞으로 계속 혁명을 위한 유리한 정치적 지반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남조선에서 당면한 토지 문제의 해결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력을 봉건적 질곡으로부터 해방하지 않고서는 남조선 인구의 7할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 대중을 기아와 빈궁에서 구출할 수 없으며 그들의 생활을 안착시킬 수 없습니다》(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이와 같은 혁명 발전의 객관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현 시기 남조선에서 토지 문제의 민주주의적 해결은 가장 절박한 혁명 과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 *

농업에서 봉건적 생산 관계의 성격은 토지의 소유 형태에 의하여 규정된다. 8.15 전부터 유지되고 있는 남조선에서의 봉건적 생산 관계는 토지의 지주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다.

8.15 해방 당시 남조선에서의 총 경지 면적 232만 여정보 중 일제 및 조선인 지주들이 그것의 62%에 해당하는 144만 7,000 여정보를 점유하고 있었다. 반면에 직접적 생산자인 농민들은 총 경지 면적의 38%에 불과한 88만 정보밖에 소유하지 못하였으며 그것마저 대부분은 척박한 토지였다.

이와 같이 일제 및 조선인 지주들의 수중에 토지가 집중된 결과 8.15 직전 남조선 농가 206만 5,000 여호 중 절대 다수인 86.2%가 소작 및 반소작농이였으며 자작농은 불과 13.8%밖에 안 되였다(《조선 경제 년보》 1948년 판).

조국 남반부를 강점한 미제는 일제의 이러한 봉건적 지주 제도를 계속 존속할 뿐만 아니라 략탈적인 착취 관계의 유지에 광분하였다.

남조선 농민들에 대한 미제의 수탈 방식의 특징은 지주 토지 소유 제도를 계속 유지 공고히 하면서 그것을 지반으로 미 독점 자본의 리익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

우선 미제는 남조선에서 일제를 대신

하여 최대의 봉건 지주로 등장하였다.

1946년 2월 일제의 《동양 척식 주식 회사》를 《신한 공사》로 바꾸어 놓고 일본인 소유 토지 전부를 이에 《귀속》시킴으로써 무려 28만 6,000 여정보를 강탈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의 정세 발전은 미제로 하여금 지주적 토지 소유 제도를 공공연하게 유지할 수 없게 하였다. 그것은 중요하게 북반부에서 실시된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의 성과에 고무된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이 장성 강화된 것과 관련된다.

교활한 미제가 토지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투쟁을 무마하기 위하여 조작해 낸 것이 바로 지주의 토지를 일부 매수하여 《분여》의 형식으로 농민들에게 강매한 기만적인 《농지 개혁》이였다.

이 《개혁》을 통하여 미제는 농촌에서 지주 계급의 존재와 그들의 착취 관계를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하는 한편 일부 농민들을 명목상의 토지 소유자로 되게 하여 토지에 대한 일치한 념원으로부터 농민들을 리탈시킴으로써 토지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약화시키려고 획책하였다.

레닌은 벌써 1906년에 반동적인 《정부》를 통한 농민들의 이러한 토지 매취(買取)가 농민 운동에 끼칠 해독적 후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실에 있어서, 속금은 어떻게 제정하든 간에, 아무리 〈공정〉한 가격을 사정하든 간에 역시 속금은 부유한 농민들에게 내기가 수월할 것이고,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무거운 부담으로 될 것이다.……토지 속매란 요컨대 가난한 농민들을 희생시켜 부유한 농민들을 강화하자는 것이며, 농민층을 분렬시키자는 것이며, 이렇게 농민층을 분렬시킴으로써 완전한 자유와 일체의 토지를 위한 농민층의 투쟁을 약화시키자는 것이다》(전집, 제 10권 2분책, 262페지).

《농지 개혁》은 미제의 식민지 략탈 통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였던만큼 지주 계급과 소작 제도 자체를 청산하기는 고사하고 반대로 공개적인 또는 은폐된 각종 형태로 농민들을 소작 제도에 얽매여 놓았다.

사실상 《농지 개혁》에 의하여 《분여》된 토지란 보잘나위 없는 것이였다.

이 《개혁》을 통하여 54만 정보의 토지가 164만 6,000 여호의 농가에 《분여》되였는데 이것은 1호당 평균 0.33정보에 불과한 것이였다.

그런데 농민들은 이 《고양이 이마빼기》만한 토지를 《분여》받은 탓으로 막대한 토지 대'가와 《토지 수득세》의 채무 노예로 전락되였으며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된 농민들은 결국 《분여지》를 지주에게 넘겨 주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이리하여 《개혁》 후 토지는 또다시 지주의 수중에로 집중되게 되였다.

이 밖에도 남조선에서는 종전부터 내려 오던 국유 농지, 사찰 및 교회의 소유지와 문중 토지 등도 거의 그대로 보존됨으로써 결국 농민들은 의연히 토지의 부족과 기근에 허덕이고 있다.

토지 부족에 대하여 남조선 출판물도 숨기지 못하고 있다.

(호수 단위 1,000호)

년도	호당 경지 면적(정보)	0.5정보 미만		0.5~1정보		1~2정보		2~3정보		3정보 이상	
		호수	%	호수	%	호수	%	호수	%	호수	%
1958	0.915	937	42	674	30	463	21	138	6	6	0.3
1960	0.869	1,008	43	707	30	486	21	141	6	7	0.3

(《사상계》 1962년 6호)

상기 자료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경영 규모 1정보 미만의 농호는 총 농호수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다수가 0.5정보 미만의 령세농이다.

《농지 개혁》 후 남조선 농촌에서 계속 강화되여 온 지주에로의 토지의 집중은 최근 군사 파쑈 《정권》의 농업 《정책》으로 말미암아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들은 《집권》 초기부터 《농지 개혁을 다시 할 의사는 없다》고 루차 떠벌리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미제의 조종하에 《분여 농지 이전 특별 조치법》을 조작하여 이미 지주 수중에 집중된 《분여지》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는 한편 형식상의 《분여지》 이동에 대한 제한마저 철회함으로써 현재까지 은폐된 형태로 진행되던 지주에로의 토지의 집중이 공개적인 것으로 되게 하였다.

또한 군사 파쑈 《정권》은 《농지 개혁 사업 정리 요령》과 《개간 촉진법》으로써 《국유 농지》와 개간 가능지(황무지, 하천 부지, 간석지 등)를 비롯하여 이에 포함된 농민들의 토지까지 략탈하여 지주들에게 넘겨 주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들은 이러한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에 기초하여 가혹한 농민 수탈에 혈안이 되고 있는바 오늘 남조선 농촌에서는 살인적인 각종 착취가 꺼리낌없이 감행되고 있다.

농민들에 대한 착취에서의 기본은 봉건적 지대에 의한 착취인데 그의 지배적인 형태는 물납 소작제이다.

소작료는 법적으로 수확고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여 있기는하나 실제로는 50%를 훨씬 릉가하고 있으며 지주가 물어야 할 《농지세》와 《수세》까지도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농지 개혁》 후 형식상으로는 소작료 착취를 제한한다고 하여 《분익 소작》, 《청부식 소작》, 《어우리》, 《신제작》 등이 나타났으나 이것은 이름만 바꾸어 놓은 변형된 착취 형태로서 종래와 마찬 가지로 소작, 병작, 고지 등 봉건적 현물 지대와 로력 지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지대에 의한 착취와 함께 고리대에 의한 봉건적 착취가 성행하고 있다.

미제와 괴뢰 정권의 수탈의 강화, 토지의 유상 《분배》, 농업 생산력의 쇠퇴, 극세농 경리의 급속한 증대 등 이 모든 요인들은 호상 결부되여 살인적인 고리대 착취의 가장 적합한 지반으로 되고 있다.

1953~1960년 간에 농촌의 고리대 부채가 90억 환으로부터 1천 800억 환으로 격증되였는데 이것은 매호당 평균 10만 환(구화폐)에 달한다.

이와 같은 봉건적 착취와 결합되여 미제와 괴뢰 정권의 식민지적 수탈이 또한 가중됨으로써 농민들의 처지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은 《농지 대'가 상환곡》, 《토지 수득세》, 《추하곡 수납 및 수매》 등의 명목으로만도 매년 300만 석 이상에 달하는 량곡을 농민들로부터 강탈하였으며 《협상 가격》에 의하여 생산비의 20~30%나 낮은 가격으로 미곡을 비롯한 농산물을 수탈하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 의연히 남아 있는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와 그에 기초하여 강화되고 있는 식민지적-봉건적 착취는 농민 대중을 빈궁과 무권리 속에 몰아 넣고 있다.

남조선 농가의 86% 이상이 《보리'고개》도 넘기 전에 절량에 신음하며 해마다 리농하는 농호가 1953년부터 1957년까지에만도 40만 호에 달하였다.

남조선에서의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와 농민들의 극도에 이른 생활고는 농촌에서의 계급적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다.

오늘 남조선 농촌에 존재하는 모순은 토지 문제를 둘러싼 지주와 농민들 간의 계급적 대립이며 지주적 토지 소유제를 통하여 농민들을 수탈하는 미제와 농민들 간의 민족적 대립 관계이다.

이 모순은 남조선 농민들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는 때, 남조선에서 토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때야 비로소 해소될 것이다.

＊　＊

우리 당은 이미 남조선에서 토지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토지는 응당 밭갈이하는 농민들의 소유로 되여야 합니다.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또는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 줌으로써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여야 합니다》(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의 사업 총화 보고).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은 토지 문제 해결의 가장 정당한 길이며 합리적인 방도이다.

이 원칙에서 토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만 농민들이 진정한 땅의 주인으로 될 수 있으며 봉건적 예속과 착취에서 해방될 수 있고 남조선 농촌에서 지주의 정치 경제적 지반을 청산할 수 있다.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실시한 토지 개혁의 승리적 결과와 남조선에서의 《농지 개혁》의 비참한 후과는 이 원칙에서 실시하는 토지 개혁만이 가장 정당한 민주주의적 개혁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남조선의 토지 문제 해결에서 미제 침략군에 의하여 군용지로 략탈된 방대한 농토를 즉시 농민들에게 반환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괴뢰 정부가 발표한 수'자에 의하더라도 미제 침략군이 1950～1957년 간에 군용지로 강제 징발한 토지만도 무려 28만 5,000 여정보에 달한다.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남조선에서 새 땅을 많이 개간해야 한다.

개략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오늘 남조선에는 경사 6도 미만의 야산, 군사 분계선 남쪽 일대의 폐경지, 서해안의 200 여개 지구의 간석지, 하천 부지, 매몰지 등 실로 200만 정보에 달하는 개간 적지가 그대로 묵어 있다.

만약 그 중 100만 정보만 개간한다 하더라도 농가 1호당 경지 면적은 현재의 평균 0.9정보로부터 1.4정보에까지 증대될 수 있다.

극도에 달한 남조선 농민들의 처지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지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는 동시에 농민들이 진 일체 부채를 벗겨 주어야 한다.

군사 파쑈 도당들이 농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고리채를 정리》한다고 떠들어 왔으나 실제 정리된 것은 없고 부채는 더욱 늘어만 가고 있다. 고리채 발생의 사회 경제적 근원을 그대로 두고 《고리채를 정리》한다는 것 부터가 허황한 공담에 불과하다.

남조선 농민들은 오직 하나로 단결하여 완강히 투쟁함으로써만 봉건적 예속과 착취에서 해방되고 자기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요구들을 실현할 수 있다.

오늘 남조선 농민들의 처지와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재난과 고통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에 있으며 남조선에서 농민들을 주요 수탈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제의 악독한 식민지적 농업 《정책》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 지주 계급을 청산하고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주의 혁명 과업은 미제를 반대하는 반제 혁명 과업을 해결함이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땅을 위한 남조선 농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미제를 조국 강토에서 몰아 내고 군사 파쑈 도당을 쓸어버려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반미 구국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한다.

남조선 농민들은 우선 전체 인민 대중과 합심하여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견결히 나서야 한다.

동시에 남조선 농민들은 자체로 농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주들과 반역자들의 토지를 빼앗아 나누어 가지기 위한 투쟁에 용감히 나서야 한다. 그리고 고리대를 비롯한 일체 부채를 물지 말며 농산물 수탈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토지 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 로농 동맹을 강화하여야 한다.

남조선 농민들은 로동 계급과의 계급적 련대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의 령도하에 빈고농을 중심으로 농민들의 단결을 강화함으로써 광범한 반제 통일 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동자, 농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이다.

남조선 농민들이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 하에 로동 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분연히 궐기할 때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분쇄될 것이며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될 것이다.

큐바에 대한 미제의 발광적인 침략 책동은 참패를 면치 못한다

리　장　화

최근 미 제국주의자들은 큐바를 반대하는 군사적인 도발 행동을 더욱 발광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미제의 전쟁 수급 .사환'군 케네디는 《필요하다면》 큐바를 반대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창하면서 15만 명의 예비병을 현역으로 소집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으며 미국 국회는 케네디의 이 요구를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사용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미제는 큐바에 대한 침략에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을 끌어 들이기 위하여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를 소집하고 큐바를 반대하는 《나토형의 군사 동맹》을 조작하며 큐바에 대한 《경제적 및 통상적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하며 큐바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로 하여금 큐바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케 하려고 시도하는 등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도발적인 조치들과 함께 미제 호전 분자들은 《큐바로부터의 위협》에 대하여 떠벌리면서 《큐바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느니 또는 《때가 늦기 전에 큐바를 해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반큐바 깜빠니야를 소란스럽게 벌려 놓고 있다.

국제 관계에서 그 류례를 찾아 보기 드문 이와 같은 횡포한 행동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전쟁과 침략을 위한 목적에서 감행되고 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국제 긴장 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지 않을 수 없으며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인민은 영웅적 큐바 인민을 반대하여 감행되고 있는 미제의 후안 무치한 침략 행동에 대하여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그것을 단호히 규탄하고 있다.

1

큐바에서 혁명이 승리한 첫날부터 미제는 혁명을 그의 요람에서 교살하고 큐바에 반동적인 친미 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여 왔다.

미제는 큐바에 대한 경제 봉쇄를 실시하였으며 외교 관계의 단절을 포함한 각종 정치적 압력을 가하였다. 미국의 공중 비적들은 큐바의 사탕수수 밭과 전원들을 불살랐으며 수백 톤의 폭발물과 각종 무기들과 암해 분자들이 락하산과 함선들에 의하여 큐바 령토 내에 투입되였다. 태업, 암살, 습격, 폭발 사건들이 미제의 앞잡이들에 의하여 빈번히 야기되였다.

큐바 혁명을 교살하기 위한 미제의 침략 행동은 케네디가 대통령 자리에 들어 앉은 이후 더욱 악랄화되였다.

케네디는 등장하자마자 《외국과 국내 폭정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큐바를 중상하면서 《이런 폭정》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야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자기의 강도적 야욕을 드러내 놓았다.

작년 4월 11일 방송 연설에서 케네

더는 《만일 우리가 지금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큐바 혁명은 《오늘보다 더욱 큰 위협으로 될 것》이라고 로골적으로 떠벌렸다. 뒤이어 4월 17일 미국 무기로 완전히 장비한 고용병들이 미 군용기의 엄호 하에 미국 함선을 타고 큐바에 불의의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큐바를 단숨에 삼키려던 케네디의 망상은 산산이 깨여지고 말았다. 플라야 히론에 기여 든 미제 고용병들은 영웅적 큐바 인민의 단호한 반격에 의하여 불과 72시간 내에 완전히 격멸소탕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배층들은 이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실패의 원인을 무력 침공의 《불철저성》과 라틴 아메리카 제국의 《집단적 행동》의 《결여》에서 찾으면서 새로운 반큐바 침공 준비에 광분하여 왔다.

케네디 정부는 반큐바 파괴 활동과 반혁명 분자들의 훈련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가하고 미국의 플로리다주를 비롯하여 살바도르, 혼듀라스, 코스타리카, 과떼말라, 도미니카 등 중미 국가들에서 큐바를 침략하기 위한 군사 기지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였다.

이미 작년 말에 라틴 아메리카의 미제 추종 국가들에만도 50 여개의 군사 기지가 설치되였고 거기에서 고용병들과 암해 분자들의 《특수》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금년 1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떼에서 진행된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는 큐바를 가일층 고립시키고 침략적인 《반큐바 련합》을 형성할 목적으로 미제에 의하여 강압 조작된 것이였다. 이 회의에서 미제는 위협, 공갈, 매수 등 비렬한 방법을 리용하여 추종 국가 괴뢰들을 동원하여 큐바를 《미주 국가 기구》에서 축출하고 큐바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데 대한 결정을 억지로 통과시켰다.

미제는 또한 《반큐바 련합》에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서구라파 동맹국들과 기타 추종 국가들도 끌어 들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서구라파 동맹국들과 일본, 카나다 등 나라들에 큐바를 반대하는 미국의 봉쇄 및 수출 금지 정책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케네디 정부는 이와 같이 큐바를 반대하는 전면적인 침략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큐바에서의 혁명의 전진을 방해하며 새로운 침략을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관타나모 기지로부터 도발 사건을 빈번히 조작하며 큐바 령공과 령해에 부단히 침입하여 지어 해적선으로 하여금 큐바 수도 하바나와, 큐바에 평화적인 물자를 수송하는 외국 선박들에 포격을 가하게 하는 등 도전 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이리하여 큐바에 대한 미제의 침략 위협은 날로 더욱 우심하여지고 있다.

철면피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큐바에 대한 이와 같은 범죄적인 침략 행동을 은폐하기 위하여 있지도 않는 《큐바로부터의 위협》이라는 잠꼬대를 늘어놓고 있다. 특히 워싱톤의 전쟁 상인들은 큐바 공화국이 미제의 침략 위협에 직면하여 자국의 독립과 자주권을 방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에 의거해서 일련의 자위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더욱더 미쳐 날뛰고 있다.

인구가 700만 밖에 안 되고 그 어떤 나라의 안전도 위협할 필요가 없는 큐바가 미국에 대하여 위협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 동자에게도 자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큐바로부터의 그 어떤 《위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큐바 혁명을 교살하고 기타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을 영원히 자기의 지배와 략탈의 쇠사슬로 얽어 매 두려는 미제의 탐욕적인 침략 야욕에 있다.

큐바와 린접해 있는 멕시코 대통령 마떼오스는 《큐바의 존재가 멕시코에 대한 그 어떤 위협으로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이웃 나라가 다른 정치 제도를 가지는 데 대하여 우려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우리는 시종일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원칙에 립각하여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대방에게도 이와 동일한 것을 요구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미국 시사 평론가 리프만은 큐바가 《미국에 대한 명백한 그리고 당면한 위협으로 되지 않으며 또한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반 사실은 미제가 바로 큐바 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쑤이며 큐바에 대한 무력 침공의 직접적 조직자이며 지휘자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

그러면 미 제국주의자들이 큐바 혁명을 그처럼 증오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그를 교살하기 위하여 날뛰고 있는 리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큐바 혁명이 보여 준 혁명적 정신과 모범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에게 주고 있는 거대한 영향력이다.

큐바에서 바티스타 친미 정권이 꺼꾸러지고 혁명이 승리하였을 때 누구보다도 놀래고 공포에 떤 것은 백악관의 지배자들과 월가의 금융 과두들이였다. 그들은 큐바 혁명을 《전체 서반구를 위협하는 대재해》라느니 《이단적》 행동이라느니 하면서 증오를 감추지 않았다. 미국 지배층들이 승리한 큐바 혁명에 대해서 그처럼 공포에 떨고 악에 바친 데는 그럴 만한 리유가 있다.

영웅적 큐바 인민은 피델 카스트로 수상의 령도 하에 간고한 무장 투쟁을 통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폭압 제도를 전복하고 혁명의 승리를 달성함으로써 전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게 손에 무기를 잡고 억압자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운다면 종국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승리의 신심을 안겨 주었다. 큐바 혁명의 승리와 그의 공고 발전은,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혁명 승리의 불가능성과 미제에의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예속의 불가피성을 설교하여 온 모든 사이비 《리론》들을 산산이 분쇄하고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게 혁명의 대로를 열어 주었다.

큐바 혁명은 승리한 후 단기간 내에 온갖 형태의 외국의 지배와 바티스타 독재 정권의 전횡을 청산하고 완전한 자주권을 쟁취하였으며 인민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여 주었다.

큐바 혁명은 수십 만의 령세 농민들에게 땅을 주었으며 외국 독점체들의 기업소들과 은행들을 국유화하였으며 문맹을 완전히 퇴치하고 모든 아동들을 받아 들일 수 있는 학교를 건설하였으며 실업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의료 시설을 수배로 확장하였으며 인종 차별과 남녀 불평등을 청산하였으며 인민들을 착취, 무지,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해방하였다

큐바에서 수행된 이 모든 혁명 위업들은 오늘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 그 해결을 절박하게 기다리는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큐바 혁명의 모범은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의 해방 투쟁에 더욱 더 거대한 고무적 힘을 주고 있다.

《지금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혁명은 불가피하다. 이것은 누구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미주 인민들이 당하고 있는 혹심한 착취, 대중의 혁명적 자각성의 장성, 제국주의의 세계적 위기, 예속된 인민들의 전반적 투쟁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제 2 하바나 선언에서).

미제는 큐바 혁명을 말살함으로써 바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질풍처럼 배회하고 있으며 워싱톤의 지배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혁명의 《유령》을 쫓아버리며 이 대륙 인민들의 앙양된 혁명의 기세를 좌절시킴으로써 민족 해방 운동에 타격을 주며 《랭전》 고취자들의 지위를 강화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큐바 혁명의 승리와 그의 승리적인 전진 앞에서 미국 지배층들이 그처럼

공포에 떨고 있으며 그것을 증오하고 있는 것은 또한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미국 독점 재벌들의 리권과도 관련된다.

오늘 라틴 아메리카 대륙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미국 독점체들에 완전히 예속되여 있으며 미국의 상품 시장으로, 원료 공급 기지로 되여 있다. 이 대륙의 철광의 거의 전부와 동광의 90%, 아연광의 3분의 2, 석유 생산의 60% 기타 산업의 주요한 고리들이 미국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으며 그들은 매년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수십 억딸라를 략탈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 독점체들은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이 큐바의 혁명에서 고무적인 힘을 얻으며 그 모범을 따르는 것을 그처럼 무서워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데로부터 미 제국주의자들은 큐바 혁명을 눈에 든 가시처럼 증오하고 있으며 그것을 교살하려고 그처럼 악랄하게 날뛰고 있다.

그러나 큐바를 반대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떠한 침략 책동도 반드시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 못한다.

3

자기의 신성한 조국을 보위하며 자기들의 정의의 혁명 위업을 끝까지 고수할 결의에 충만된 영웅적 큐바 인민은 미 제국주의의 새로운 무장 침략의 위협에 대처하여 《로동, 학습, 총》이라는 전투적 구호 밑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큐바 인민은 피델 카스트로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큐바 혁명 정부의 주위에 한사람같이 단결되여 있으며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자기의 혁명적 전취물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 결연히 궐기하고 있다. 《우리는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영광스럽게 희생할지언정 제국주의 노예 밑에서 살기는 원치 않는다》고 한 피델 카스트로의 말은 영웅적 큐바 인민의 일치한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

영웅적 큐바 인민은 또한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주며 강도들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물질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를 결정적으로 압도하는 강유력한 사회주의 진영과 세계 평화 국가들과 인민들이 큐바 인민의 성스러운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의 편에 서 있다. 이는 큐바 혁명을 미제의 무력 침범으로부터 보위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큐바 혁명의 고무적 영향 하에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손에 무기를 잡고 궐기한 베네주엘라와 과테말라 인민들은 친미 독재 정권을 뿌리 채 뒤흔들어 놓고 있으며 워싱톤의 지배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무장 투쟁은 콜롬비아, 파라과이, 에쿠아도르 등 나라들에서도 강력히 전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르젠틴, 브라질,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칠리, 페루, 콜롬비아 등 나라들의 로동자, 농민 및 선진적 인테리들은 미제의 예속과 내정 간섭을 반대하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상 처지의 개선과 임금의 인상 등을 요구하여 대규모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이 모든 투쟁들은 《큐바 혁명을 옹호하자》라는 구호와 함께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큐바 혁명의 영향이 날로 장성하고 그를 지지하는 인민들의 투쟁 기세가 앙양되고 있는 환경에서 일부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 지어는 서구라파의 미국의 동맹국들까지도 미제의 반큐바 음모에 가담하기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금년 1월에 진행된 푼타 델 에스떼 회의에서 브라질, 멕시코, 칠리 및 기타 라틴 아메리카 인구의 3분의 2 이상을 포괄하고 있는 나라 정부들이 미제의 반큐바 음모에 가담하기를 거부하였으며 최근에 워싱톤에서 진행된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에서도 브라질, 멕시코, 칠리, 우루과이 등 나라들은 큐바와의 무역과 항행을 중지하라는 《미제의 단순한 집단적 조치》도 반대하였다. 또한 영국, 노르웨이, 카나다 등 서구라파의 동맹국들도 큐바와의 정상적인 무역을 저애하려는 워싱톤의 강요에 복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오늘 대부분의 미국 출판물들까지도 미국의 반큐바 깜빠니야가 《심대한 정치 도덕적 패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미제는 제아무리 발악한다 하여도 력사 발전의 수레 바퀴를 뒤로 돌려 세울 수 없으며 큐바 혁명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으며 라틴 아메리카 대륙을 휩쓸고 있는 민족 해방 투쟁의 격랑을 진압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인민들의 치솟는 격분과 증오를 자아낼 뿐이며 미제의 강도적이며 비렬한 침략 정책의 파탄을 초래할 뿐이다.

미제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고수하기 위한 큐바 인민의 정의의 투쟁은 세계 평화와 민족 해방 투쟁의 위업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큐바 인민의 반제 혁명 위업은 곧 전 세계 진보적 인류의 공동 위업이다.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세계 모든 인민들은 전력을 다하여 큐바 인민의 혁명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것을 자기들의 고상한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조선 인민은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여 궐기하고 있는 큐바 인민의 투쟁을 항상 자기의 투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에 전투적 련대성을 표시하고 있다.

조선 인민은 과거에도 그러하였던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기 위한 큐바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모든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미제 침략자들로부터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고수하기 위하여 일떠 선 큐바 인민의 것이다.

전 세계의 공정한 사회 여론은 큐바에 대한 미제의 광란적인 전쟁 소동을 한결같이 규탄하고 있으며 그것을 즉시 중지할 것을 견결히 요구하고 있다.

만약 미 제국주의자들이 큐바 인민과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그리고 전 세계 인민들의 이와 같은 준엄한 경고를 무시하고 큐바를 반대하는 분별 없는 침략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들은 더욱더 심대한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함부로 날뛰지 말고 당장 큐바에서 침략의 마수를 떼야 한다.

문답학습

인식 과정에서의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맑스주의 인식론은 사람들의 인식이 구체에서 추상에로, 추상에서 다시 구체에로 나아간다고 가르친다.

객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밟는 것은 인식 대상인 모든 사물과 현상 자체가 여러 가지 측면과 요소들로 복잡하게 구성되여 있으며 객관 세계를 반영하는 사람들의 생리적 구조가 또한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객관 세계를 대할 때 그것은 처음에는 혼돈된 상태로 나타난다. 즉 사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 형태, 색갈, 냄새, 소리 등이 감각 기관을 통하여 복잡한 전체로 나타난다. 이때에 우리는 사물이 감성적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것으로 인식되였다고 말한다.

감성적—구체적인 것은 인식의 첫 단계이다. 그러나 이 때에는 아직 사물의 주요한 것, 본질적인 것은 부차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과 혼돈된 상태로 엉켜 있으며 사물의 본질과 합법칙성은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의 인식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감성적인 구체로부터 추상적 사유로 나아간다.

추상적인 것이란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기 위하여 사물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측면, 요소들을 머리 속에서 갈라 낸 것이다.

사람들은 실천 과정에서 유익하고 필요한 부분과 측면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무엇이 주요하고 본질적인 것인가를 알려고 한다. 그런데 사물의 여러 속성들과 그것의 본질적 측면들은 무수한 실머리로 서로 엉켜 있는만큼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사물의 매개 부분을 머리 속에서 차례차례로 하나하나씩 세밀하게 연구하여야 한다. 추상적 인식 단계가 필요한 리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공장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자면 공장 당 위원회의 역할, 생산 지도 정형, 설비 상태, 로동자들의 구성과 각오 정도,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 후방 공급 사업 등을 료해하고 여기에서 긍정적인 것이 무엇이며 부정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갈라 내여야 한다. 즉 추상적 사유로 공장의 매개 측면들을 분석하여야 한다.

추상적 사유는 그것이 정확한 지식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신실증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그것은 사물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게 하며 진리에로 나아가게 하는 모든 과학적 인식의 하나의 단계로 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사유는—만약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에로 상승하면서 진리**에서** 물러 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접근한다. **물질**, 자연 **법칙**의 추상, **가치**의 추상 등 한 마디로 말해서 **모든** 과학적인 (옳은, 신중한, 허망하지 않은) 추상은 자연을 더 심오하게, 더 정확하게, 더 **완전하게** 반영한다》(레닌 전집, 제 38권, 222페지).

그러나 사물을 전면적으로 료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으로써는 부족하다.

형이상학자들과 관념론자들은 추상적 사유에 머무르고 있다. 그들은 추상적 사유로 얻은 하나의 요소, 약간의 측면만을 고립시켜 그것을 과장하고 절대화함으로써 사물 전반을 정확히 못 보고 객관 세계에 대한 외곡된 견해와 편견을 가진다.

사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도달하자면 추상에 의하여 분석한 사물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하여 매개 부분을 본질적 련관 속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종합 과정은 곧 사물에 대한 구체적 파악 과정이다.

인식에서 구체적인 것이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과 속성들이 결합되여 의식 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례하면 공장 내의 생산 지도 정형을 알려면 그의 한 부분인 생산 계획 수립 하나만 고립시켜 료해해서는 안 되며 수립된 계획을 관철하기 위하여 기술적 지도를 잘 하는가? 자재를 제때에 공급하는가? 로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는가? 등을 통일시켜 보아야 한다.

또한 생산 지도 정형에 대한 자료들을 안 다음에도 그것만을 따로 떼여서 고찰한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우결함의 근원을 밝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공장 전반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생산 지도 정형 뿐만 아니라 대안 전기 공장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와 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3차 전원 회의 결정 및 결론을 집행하기 위한 공장 당 위원회의 조직 정치 사업을 알아야 하며 로동자들의 구성과 각오 정도,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 후방 공급 사업 등 기타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련결시켜 료해하여야 한다. 즉 구체적으로 료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때의 구체적인 것은 처음의 감성적인 구체와는 다르다.

감성에서의 구체적인 것이나 사유에서의 구체적인 것이나 모두가 다양한 측면의 결합이라는 데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전자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외적인, 표면적인 측면들의 혼돈된 결합이였다면 후자는 사물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본질적 측면들의 결합이다.

사유에서 구체적인 것은 사물에 관한 가장 심오하고 풍부한 지식으로 된다. 추상에서 구체에로 나아가는 과정은 추상적 사유에서 얻어진 각이한 규정들을 단순히 서로 합치거나 기계적으로 모으는 과정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에 침투하면서 추상적 사유에서 분석된 매개 부분들이 수정되고 보충되며 심화되는 과정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천명한 맑스의 연구 방법은 우리들에게 추상에서 구체에로 나가는 과학적인 인식 과정의 전형을 보여 준다.

맑스는 《정치 경제학 비판》 서론에서 자본주의 경제 기구를 과학적으로 알자면 형이상학적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제학자들처럼 인구, 국민, 국가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로 구성되여 있는 혼돈된 직관적인 전체에서 시작하여 분업, 화폐, 가치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요소를 찾아 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는 자본주의를 구

체적으로 파악하려면 추상적인 단순한 요소들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구체적인 것을 인식하는 연구 방법이 적용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맑스는 《자본론》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추상적인 개념인 상품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여 화폐에 대한 서술에로 나아갔다. 화폐는 상품이 표현하는 사회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교환 관계도 반영하고 있는 것만큼 상품보다 더 복잡하고 더 구체적인 개념이다.

계속하여 맑스는 화폐에 대한 분석에서 자본에 대한 연구에로 나아간다.

자본은 화폐를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 기구도 반영하고 있는 것만큼 화폐보다 더 다방면적 관계를 보여 주는 구체적 개념이다. 이리하여 맑스는 자본의 모든 법칙들을 종합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구체적 현상들, 생산의 무정부성, 공황, 로자 간의 모순과 계급 투쟁, 자본주의 사회의 멸망의 불가피성 등을 론증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자본론》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관계들과 측면들이 종합되여 자본주의 사회의 구체적 면모들을 보여 주고 있다.

사물 현상을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사물 현상의 한 측면만을 추상적으로 고립시켜 보는 현상은 수정주의자들에게서 그 전형을 찾아 볼 수 있다.

례하면 《인민적 자본주의》를 운운하는 자들은 현 시기 자본주의 사회의 소경영자들 속에서 주권(株券)이 판매되는 하나의 현상만 보고 절대 다수의 근로자들이 주권을 구매할 수 없다는 사실, 《주민들 속에서의 주권의 판매》가 독점 자본가들 수중에 자본을 집중시키며 결국 인민들에 대한 독점 자본가 집단의 착취를 일층 강화한다는 것 등 가장 본질적인 측면들을 못 보고 《인민이 자본가로 될 수 있다》는 황당한 리론을 내놓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주장하는 자들은 일련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부분적인 공업 기업소가 《국유화》된 표면적 사실 하나만 보고 《국유화》를 통하여 자본가들이 리윤이 적은 기업소를 비싸게 팔아 먹는다는 것, 그리고 《국유화》된 기업소는 인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리윤은 국가와 련결된 독점 자본가 집단이 얻어 먹는다는 사실 등을 보지 않으면서 수정주의적 리론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 사물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지식은 머리 속에서 단번에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혁명 실천 과정에서 파악된다.

실천은 인식의 출발점이며 목적일 뿐만 아니라 인식을 부단히 발전시키는 추동력이다. 옳은 실천 속에서만 우리는 사물의 여러 측면들을 감성적인 단계에서 더욱 생동하고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걸린 문제들을 해결하는 혁명 실천 과정에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들을 더욱 명백히 파악하게 되며 사물의 본질적 측면이 무엇인가를 뚜렷이 알게 된다.

실천은 사람의 인식이 감성적인 구체

에서 추상에로, 추상에서 다시 구체로 나아가는 과정이 정확한가를 검증하며 사유에서의 구체적인 것의 진리 여부를 결정한다.

일'군들이 맡겨진 사업을 구체적으로 인식함에 있어서 주요한 것은 언제나 사실에 근거하며 현실 자료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군들이 항상 현실 속에 들어 가며 하부에 내려 가 언제나 군중과 토의하고 그들 속에 침투하면서 현실의 많은 자료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일'군이 공장이나 협동조합에 내려 가 부닥치는 각이한 현상이나 사실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단순히 라렬하거나 나타난 결함의 뒤공무니만 따르면서 지적하는 데만 그친다면 아직 그 일'군의 사업 수준이 감성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사실과 경험에만 매달리고 사물의 본질을 리해하지 못하는 경험주의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하부 지도에서 발견한 결함을 시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감성적 자료들, 즉 나타난 결함들과 우점들을 무수히 수집하였으나 그것의 현상만 알고 그것을 산생한 원인과 조건들을 알지 못하였고 현상 속에서 작용하는 본질적 측면들을 밝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부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도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발견한 모든 사실들과 자료들을 추상적 사유를 통하여 심오히 연구하고 그 속에서 작용하는 주요한 힘이 무엇이며 그것들의 호상 관계가 어떠하며 여기에서 발생 발전하는 새 것과 소멸하며 죽어 가는 낡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부 지도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들을 통일적으로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자료들과 사실들을 분석 종합하며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에 있어서 법칙이나 범주, 개념 등은 매우 주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혁명 과업 수행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현상들 속에서 내부적 련관 관계와 사업의 본질 속에 깊이 들어 가게 하는 무기로 된다.

참된 구체적인 인식이란 바로 이러한 일반적 원칙에 기초한 인식 과정을 말한다.

맑스-레닌주의 일반적 법칙이 매개 일'군들의 혁명 과업 수행에서 지침으로 되는 리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우리 당 정책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일'군들로 하여금 혁명 과업 수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케 하는 향도적 지침, 등대로 된다.

때문에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이것은 매개 일'군들이 자기 사업을 정확히 료해하며 그를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강 용 섭

원에 의한 통제

원에 의한 통제란 화폐를 통하여 실시하는 기업소 경영 활동에 대한 통제 형식의 하나이다.

원에 의한 통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폐적 통제라고도 한다.

상품 화폐 관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모든 사회적 생산물은 현물과 동시에 화폐에 의하여 계산되고 그 분배와 소비도 화폐의 매개 없이는 실현되지 못한다.

생산 기업소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그가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화폐 자금이 있어야 한다.

화폐 자금의 준비 없이는 자재도 구입할 수 없고 화폐적 계산이 없이는 생산 결과를 평가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제품 실현도 화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로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로력 보수도 화폐 없이는 지불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화폐와 관련을 가지지 않는 경제 활동이란 거의 없다.

그런데 기업소들은 이 화폐 자금을 자기에게 부과된 경제 계획을 질적 량적으로 수행한 정도에 따라서만 받을 수 있다.

만약 기업소가 사업을 잘하지 못한다면 필요한 화폐 자금을 제대로 [illegible]받지 못할 것이며 기업소의 재정 상태에 즉시 반영될 것이다.

그러므로 화폐를 옳게 리용만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복잡한 경제 활동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원에 의한 통제는 우선 기업소 자체 내부에서, 기업소 호상간에서, 그리고 재정 기관, 은행 기관들을 통하여 실시된다.

기업소와 그 상급 기관들은 모든 생산적 소비와 생산물을 화폐 형태로 계산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원에 의한 통제를 실시하며 기업소들 호상간에 있어서는 체결된 경제 계약상 의무 수행과 대금 결제를 통하여 원에 의한 통제가 실행된다.

재정 기관은 기업소에 대한 자금 공급과 국가 기업 리익금, 거래 수입금 등 예산 납부 행정을 통하여 원에 의한 통제를 수행한다.

즉 재정 기관은 기업소의 생산 및 류통 계획 규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제품 실현에 따라 국가 기업 리익금, 거래 수입금을 받음으로써 기업소들의 계획 과제 수행에 자극을 주게 되는 것이다.

현 시기 원에 의한 통제 중에서 은행 기관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통제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은행 기관들에 의하여 실행되는 원에 의한 통제는 그 작용 범위가 가장 넓고 그 실효성도 매우 크다.

기업소, 기관들은 자체의 본신 활동을 통한 모든 화폐 수입을 반드시 은행에 보관시켜야 하며 화폐의 지출도 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모든 화폐는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만이 자기의 운동을 시작하고 끝마친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나라의 모든 령역의 매 환절에서 매일 매 시각에 발생되는 경제 동태를 민첩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된다.

은행은 이 조건을 리용함으로써 인민 경제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실효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은행 기관들은 인민 경제에 대한 결제의 조직, 대부의 실시, 화폐 류통 조절과 현금 출납 등 제반 화폐 업무를 통하여 인민 경제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를 실행한다.

례컨대 은행은 기업소에 자금을 대부하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 기업소 경영 활동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를 실시한다.

대부는 우선 계획에 예견된 대상에 대하여 그리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만 줄 수 있다.

따라서 생산적 자재를 지나치게 많이 구입하여 사장시키며, 정당한 리유 없이 미성품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완제품을 체화시킴으로써 발생되는 추가적인 계획 외의 자금적 수요에 대하여서는 대부를 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제때에 시정되지 않으면 대부를 중지함으로써 그를 시정시킬 데 대한 자극을 주게 된다.

은행 대부는 반드시 약속된 기일에 가서 반환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은행 대부금이 약속한 기일에 가서 정확히 반환되자면 기업소들에서는 모든 계획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재정 규률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은행 대부금이 제기일에 가서 반환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기업소의 경영 활동에서 크든 작든 간에 일정한 결함이 있다는 신호로 된다.

즉 은행 대부금은 계획 과제의 미수행, 경영 손실의 발생, 자재, 미성품, 완성품의 기준 초과, 자금의 용도 위반 등 제 사실들이 있을 경우에 제 기일에 가서 반환되지 못하고 기한 경과 대부금으로 넘어 가게 된다.

은행은 기한 경과 대부금이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서는 고률의 리자를 받는다.

이와 같이 은행은 자기의 활동을 통하여 매개 기업소가 인민 경제 계획을 질량적으로 훌륭히 수행하며 재정 규률을 엄수하도록 자극을 주며 통제를 실시한다.

그러면 현 시기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원에 의한 통제의 중심을 옳게 선정하는 문제이다.

오늘 원에 의한 통제는 우선 중앙 공업 기업소와 건설 기업소에 중심을 두면서 선차적으로 자재의 정확한 공급, 그의 합리적 리용과 엄격한 절약을 자극하는 데 돌려져야 한다.

아직 일부 기업소들에서는 필요 없는 자재를 구입하여 초과 저장을 조성함으로써 자재를 편재 사장시키며 반제품을 필요 이상 체화시키거나 오작품을 내여 귀중한 자재를 랑비하는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통제 기관들은 우선 자재의 구입과 리용에 대하여 세심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특히 은행 기관들은 결제, 대부 업무를 통하여 매개 기업소들에서 꼭 필요한 자재만 구입하도록 자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원에 의한 통제는 또한 계획 규률을 강화하는 데 돌려져야 한다.

자금의 항목-용도별 류용은 인민 경제에서의 계획 규률을 위반하게 하는 중요 원인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금은 반드시 지정된 용도에 리용하도록 하며 만약 제 용도에 필요 없게 된 자금은 제때에 회수하며 계획을 미달함으로써 발생되는 자금적 수요에 대하여서는 재정-은행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재정-은행 기관들은 경영 손실 기업소의 손실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도록 방조하며 모든 기업소들에서 재정적 결산을 정확히 짓도록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은행 기관들은 기업소로부터 재정 결산 자료를 규정된 시일에 받아 그를 분석하고 이에 기업소 현지 검열을 배합하여 나타난 결함을 시정할 데 대한 대책안을 제기하며 그를 시정할 때까지

구체적 방조를 주어야 한다.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둘째로 중요한 문제는 통제 방법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보다 개선하는 것이다.

원에 의한 통제에서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기업소 현지 통제이다. 그러므로 통제 기관들은 사무실적 통제를 더욱 간소화하고 그 대신 현지 검열을 더 많이 계획적으로 그리고 선후차를 옳게 가려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시에 제재와 방조를 옳게 배합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

즉 부정적 현상은 엄격한 제재를 가하며 그를 끝까지 시정하도록 적극 방조하여야 한다.

매개 경제 지도 일'군들은 원에 의한 통제의 의의와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고 현물 지표만이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며 특히 이 사업에 광범한 군중을 적극 인입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 병 업

근 로 자 제 17호 (루계 210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1962년 10월 20일 인 쇄• 1962년 10월 17일

ㄱ—230665 값 40전

서적 안내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전투 회상기 (4)

4×6 판, 252 페지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전투 회상기》(4)에는 오 진우 동지의 《북만에 울린 포성》, 김 룡화 동지의 《푸수궁에서의 전투》, 김 익현 동지의 《팔도강 〈집단 부락〉 습격 전투》 등 22편의 전투 회상기들이 수록되여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전투 회상기들에서는 항일 무장 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한 김 일성 원수의 현명한 전략 전술적 방침과 탁월한 령군술, 인민 무력 건설을 위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피어린 투쟁과 그의 빛나는 업적들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항일 빨찌산 투사들이 지니고 있던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 혁명적 동지애, 인민과의 혈연적 련계, 전투에서의 용감성과 대담성, 령활성 등 고상한 혁명 정신과 도덕 품성을 감명 깊게 보여 준다.

이 책은 이미 발행되여 독자들 속에서 애독되고 있는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들과 함께 혁명 전통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당적 사상 체계를 강화함에 있어서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조선 인민군 출판사에서 발행함